〈특별기고〉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제1회): 개항 이전의 시기*

김 학 준 | 동아일보사

이 문헌조사는 개항 이전의 시기에 조선을 관찰한 서양인들의 기록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 기록들에 조선이 어떻게 비쳤던가를 주로 정치학적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주제어: 〔모두 인명(人名)임〕 세스뻬데스, 프로이스, 로드리게스, 하멜, 레지스, 뒤 알드, 프레보, 달레, 라 페루즈, 브로턴, 홀, 귀츨라프, 벨처, 게랭, 곤차로프, 로즈, 오페르트

---

* 필자는 지난 2008년 가을 학기(9월~12월 쿼터) 동안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가 개설한 『비교정치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이라는 명칭의 강의를 맡았다. 필자를 초청해준 스탠포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신기욱(申起旭) 교수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Chaofen Sun(孫朝奮) 교수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필자의 강의의 초점은 "남한은 '흥기' 했음에 비해 북한은 '쇠락' 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그 원인들은 무엇인가?"에 있었다. 이 물음은 결국 조선이 멸망한 원인은 무엇인가의 물음으로 거슬러올라갔으며, 그리하여 수강생들과 함께 조선의 멸망에 관한 당시 서양인들의 관찰들을 읽게 됐다. 필자는 그 방면의 책들을 읽으면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복룡(申福龍) 박사를 떠올리게 됐다. 한국정치학회 회원들 가운데 이 주제에 관해 개척적으로 또 가장 깊이 연구한 회원은 신 교수이기 때문이다. 귀국한 뒤 이 논문을 쓰면서 필자는 궁금한 점들에 대해 신 교수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신 교수의 도움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I. 문제의 제기

한반도의 분할은 일제의 조선병탄에 따른 조선의 국권상실로부터 시작됐다. 그렇다면 조선은 왜 국권을 빼앗겼던 것인가? 그 까닭을 우리는 조선의 안과 밖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학계에서 말하는 내인론과 외인론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조선의 후기와 식민시기에 조선을 관찰한 서양사람들의 기록들을 통해 그들의 눈에 조선이 어떻게 비쳤던가를 살피기로 한다. 그들의 관찰들은 정확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틀린 것이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조선을 망국으로 이끌었던 병폐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관찰을 통해 조선이 처했던 국제상황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조선이 거기에 얼마나 무능하면서도 비효율적으로 대처했던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방면의 책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이 제1회는 조선이 1876년에 개항하기 이전의 시기에 한정하기로 한다.

II. 신라와 고려를 언급한 서양인들

우리나라[1]를 책에서 처음 언급한 서양인은 누구였을까? 영국의 화가이면서 여행가였던 새비지-란도는 1895년에 출간된 자신의 저서에서 이탈리아 사람 마르코 폴로(Marco Polo)가 최초의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새비지-란도는 마르코 폴로가 자신의 유명한 『동방견문록』에서 코리아(Coria)라는 나라에 대해 언급한 것이 조선에 대한 서양사람의 첫 언급이었다고 한 문장으로 짧게 썼다(Savage-Landor 1895, 30).

새삼스런 설명이 필요 없듯, 마르코 폴로는 몽골제국의 창건자 칭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칸이 몽골제국을 통치하던 때인 1274년에 몽골제국의 여름 수도 상도(上

1) 여기서 필자는 "우리나라"라는 단어를 썼다. "우리나라"에는 "신라"로부터 시작해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름들이 포함된다. 그러하기에 그것 대신에 "코리아" 또는 "조선"이라고 특정하면 이 글을 읽음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都)에 도착해 1291년까지 17년동안 쿠빌라이의 신하로 봉직했다. 쿠빌라이는 몽골제국의 5대 황제이지만 몽골제국을 원(元)으로 명명했기에 원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다. 이 시기는 고려의 충렬왕(忠烈王) 재위기에 해당된다.

마르코 폴로는 1291년에 쿠빌라이가 중동으로 파견하는 사신의 자격으로 원나라를 떠났으며, 그동안 귀국의 기회를 포착하고 싶어했던 그는 이 계제를 이용해 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1295년에 고향 베니스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확실하지 않은 까닭으로 1298년에 제노아의 감옥에 갇혔고 여기서 자신의 몽골에서의 경험을 받아쓰게 함으로써 『세계의 서술(*The Description of the World*)』이라는 책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2)]

그러면 이 책이 처음 출판된 때는 언제였나? 여러 형태의 필사본으로 전승되어 오던 마르코 폴로의 구술이 인쇄본으로 처음 출판된 때는 1558~59년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김호동 2000, 47). 이 시기는 조선왕조의 명종(明宗) 재위기에 해당된다. 인쇄본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종류로 나타났는데, 그것들 가운데 하나가 뒷날 일본에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됐고, 그 번역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 제목으로 알려지게 됐다(김호동 2000, 25-26).

그런데 새비지-란도의 주장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정확하지 않다. 첫째, 『동방견문록』은 코리아(Coria)가 아니라 카울리(Cauli)라고 썼다(김호동 2000, 225). 카울리는 고려의 중국식 발음을 옮긴 것이다. 마르코 폴로가 카울리에 대해 몽골제국에 복속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아주 짧게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고려를 방문한 일은 없었다.

둘째, 마르코 폴로 이전에 우리나라에 대해 언급한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 제일 처음 언급한 사람은 페르시아의 지리학자 이븐 쿠르다드빈(Ibn Khurdadbin)으로, 그는 885년에 간행한 자신의 저서 『도로들과 왕국들에 관한 책(*Book of Roads and Provinces*)』에서 신라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라에는 금이 많으며 이 나라를 찾아가는 회교도들은 가끔 여러 혜택을 받으며 정착하곤 한다고 썼던 것이다.[3)] 885년이

2) 방역본으로 대표적인 것은 다음이다. 김호동(金浩東) 역주. 2000.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서울: 사계절.

3) 김정위(金定慰). 1977. "중세 중동문헌에 비친 한국상(韓國像)." 『한국사연구』 제16집, 29-50쪽. 정수일 교수는 이븐 쿠르다드빈을 이븐 쿠르다지바(Ibn Khurdazibah)라고 썼다. 정수일. 2002. 『문명교류사 연구』. 서울: 사계절. 290, 294쪽. *Book of Roads and*

면 진성여왕(眞聖女王)이 등극하기 2년 전인 신라 말기 헌강왕(憲康王) 재위기에 해당된다. 이 지리학자가 우리가 이 문헌조사의 제3회에서 살필 비숍 여사의 책에서는 "9세기의 아랍인 지리학자 코르다드베(Khordadbeh)"로 기록되어 있다.[4] 800년대에 중동사람들은 신라를 직접 왕래했으며 그들 가운데 신라사람과 결혼해 신라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다. 따라서 중동사람의 책에 신라가 등장한 것은 자연스러웠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슬람 지리학의 거장인 알 이드리시(Al Idrisi)는 1154년에 저술한 『천애(天涯) 횡단 갈망자의 산책』 속에 세계지도를 그리면서 신라를 중국 동남해에 위치한 섬나라로 기입했다. 이슬람권과 우리나라 사이의 문화적 교류를 깊이 연구한 정수일(鄭守一) 교수에 따르면, 이것이 신라가, 따라서 우리나라가, 기입된 현존 세계지도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정수일 2002, 296-297). 알 이드리시를 진후해 중동의 지리학자들은 신라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신라가 아름다운 산천경개와 금을 비롯한 많은 보석들을 지닌 나라라고 설명했다(정수일 2002, 300-308).

이븐 쿠르다드빈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프랑스 리옹에 자리잡은 프란체스코회 수도사 카르피니(Giovanni da Plano Carpini, 프랑스어로는 Jean de Piano de Carpino)였다. 그는 몽골제국과의 친선 및 연합을 희망하는 뜻을 담은 교황 인노첸시아 4세[또는 이노센트 4세]의 친서를 몽골제국의 제3대 황제 구유크칸(定宗)에게 전달하기 위해 1246년에 몽골제국을 방문했다. 이로써 그는, 기록으로만 따질 때, 몽골제국을 공식방문한 최초의 유럽인이 됐다. 그러나 구유크가 교황의 복종을 요구하면서 교황의 친서를 거부함에 따라 카르피니는 빈 손으로 돌아

---

*Provinces*에서 "Provinces"를 "지방(地方)"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다. 신복룡, 2002,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 서울: 풀빛, 26쪽.

4) Isabella Bird Bishop with a preface by Sir Walter C. Hillier. 1897. *Korea and Her Neighbo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12. 2 Vol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저자는 Baron Richofen이 중국에 관한 저서에서 그렇게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Richofen으로 추정되는 Ferdinand Freiheorr von Richthofen이 쓴 *Tagebücher aus China* (2 Vols: Berlin: Dietrich Reimer, 1907)에 Korea에 관해서는 219쪽부터 238쪽 사이에 설명이 있으나 Khordadbeh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코르다드베를 고르다베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무함마드 깐수, 1992, 『신라 · 서역 교류사』,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2쪽. 저자의 한국 이름이 정수일이다.

올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여행이 무위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그는 1247년에 리옹에 도착한 뒤 자신의 견문을 바탕으로 『몽골인의 역사』를 저술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만난(또는 만난 것 같은?) 외국 사신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가운데 솔랑게스(Solanges)의 왕자들을 포함시켰다. "해가 뜨는 나라" 또는 "해가 뜨는 나라의 사람"이라는 뜻의 이 솔랑게스가 몽골어로 고려 또는 고려사람을 지칭했다(오인동 2008, 32).

카르피니에 이어 13세기 프랑스의 학자 뱅상 드 보베(Vincent de Beauvais)도 몽골의 역사를 다룬 책을 썼다. 카르피니를 인용한 이 책에서 드 보베 역시 솔랑기(Solangi)에 대해 언급했는데, 솔랑기는 만주어로 무지개라는 뜻으로 고려를 지칭한다고 한다. 카르피니와 드 보베에 이어 프란체스코회 수도사 기욤 드 루브룩(Guillaume de Rubruck) 역시 몽골제국에 대한 책을 쓰면서 고려에 대해 언급했다. 1253년부터 1255년까지 몽골제국과 그 주변국가들을 여행한 플랑드르 출신의 이 수도사는 『몽골제국 여행기』라는 책을 쓰면서 중국의 동쪽에 카울(Caule)이 있다고 쓴 것이다. 카울은 물론 고려를 뜻했다. 루브룩은 카울이 몽골보다 더 먼 곳에 있으면서 산으로 둘러싸인 섬이라고 설명한 뒤 카울은 춥고 폐쇄된 나라로 몽골에 엄청난 양의 금은궤를 조공으로 바침으로써 독립성을 지키고 조용함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프랑스의 한국학 연구학자로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인 프레데릭 불레스텍스(Frédéric Boulesteix) 박사에 따르면, 루브룩은 고려에 대해 "반복해서 말한 최초의 인물"로서 그는 당시의 성직자들과 지식인들에게 고려에 대한 "최초의 이미지를 심어준 장본인"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심어준 고려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나? 불레스텍스는 그것이 "'미개한' 그러면서도 '문명화된', 지리적으로 멀고 폐쇄되었기에 더욱 멀게 느껴진 〔나라〕라는 이미지"였다고 평가했다.[5]

유럽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슬람계 사람들 역시 고려에 대해 언급했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1311년에 편찬된 라시드 앗 딘(Rashid-ad-Din)의 『집사(集史)』였다. 오늘날의 이란과 소아시아 일대에 자리 잡았던 일 칸국의 총리이자 의사였던 그는

5) 프레데릭 불레스텍스 저 · 이향 김정연(金靜延) 역. 2001.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지: 서양인이 본 한국인 800년』. 서울: 청년사, 26쪽. 역자들은 이 역서의 원서 이름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몽골제국을 건설하고 통치하던 여러 군주들의 연대기를 쓰면서, 원제국의 일부로 카오리(Kao-li)가 있다고 쓴 것이다(오인동 2008, 46-49).

III. 조선왕조 전기[6]에 조선을 언급한 서양인들의 기록들

『집사』를 마지막으로 서양인들의 저술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 『집사』가 편찬된 시점으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따라서 우리나라를 조선의 연산군(燕山君)과 이어 중종(中宗)이 통치하던 시점에서, 서양인들의 저술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활발해졌다. 그 첫 사례는 오스만제국의 학자이며 여행가인 아크바르(Ali Akhbar)가 중국을 방문한 뒤 1516년에 페르시아어로 쓴 『중국서(中國書)』였다. 그는 여기서 우리나라에 대해 언급하며 국명을 카오리(Kao-li)라고 표기했다. 카오리는 물론 고려를 지칭하는 것이었다(오인동 2008, 54-56).

1.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된 예수회 선교사들

조선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심은, 그들의 저술들만을 놓고 볼 때, 『중국서』가 카오리를 언급한 때로부터 32년이 지난 1548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로, 포르투갈의 식민지 인도의 고아(Goa)에서 그리고 특히 예수회의 천주교 포교를 허용한 일본에서 시무하던 예수회의 선교사들이 꼬레(Coree) 또는 꼬리아(Coria 또는 Corea) 또는 꼬라이(Coray)에 대해 쓴 것이다. 예컨대, 스페인 출신의 코스메 토레스(Cosme Torres) 신부와 이탈리아 출신의 니콜로 란칠로토(Nicolo Lancillotto) 신부는 1549년께 고아에서 쓴 편지에서 "일본사람들은 중국보다 더 동쪽에 있는 꼬레(Coree)라고 부르는 나라사람들과 교역을 한다"고 써서 로마교황청에 보낸 것이다. 이 꼬레가 카울레 또는 카울리 또는 카오리 등 중국사람들의 발음을 따른 표음이 아닌 로마자로 표기한 최초의 우리나라 이름이다(오인동 2008, 76). 이어 스페인 출신의 가스빠르 빌레라(Gaspar Vilela) 신부는 1571년에 쓴 편지들에서 일본

6) 신용하(愼鏞廈) 교수는 조선의 역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면 임진왜란이 분기점이 된다고 보았다. 2008년 12월 18일 필자(김학준)와의 대화에서.

과 중국 사이에 꼬레아 또는 꼬라이라는 왕국이 있다고 썼다. 우리나라가 꼬레아라 표기된 최초의 사례이다. 그는 조선의 건장한 남자들과 전사들은 활을 잘 쏘고 창과 칼을 잘 쓰는 훌륭한 기마병이라고 덧붙였다(오인동 2008, 78).

그들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 출신의 안토니오 프레네스티노(Antonio Prenestino) 신부는 1578년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꼬레아라는 나라가 있다고 썼다.[7] 그런데 그는 조선을 "일본보다 미개한 타타르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비하한 뒤, 조선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 1578년 6월 5일에 우리들은 마카오를 출발했다. 모두들 근래 일어나지 않던 태풍의 해라고 해서 적잖이 불안했다. 〔…〕 〔7월 21일에〕 우리는 육지 가까이 있었지만 그곳은 우리들이 기대한 일본 육지가 아니고 꼬레아라는 것을 알았다. 안내자는 "거기에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백성이 사는데, 다른 나라 사람과 통상을 바라지 않는다. 몇 해 전 포르투갈사람의 정크선이 그곳 해안에 도착했을 때, 이 흉악한 주민들은 그 배의 소정(小艇)을 빼앗고 그 안에 탄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전원이 학살되지 않기 위해 적잖이 고생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새삼스럽게 의아하고 두려워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8]

1578년이면 선조(宣祖)가 다스리던 때였다. 이 사건은 조선의 기록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타우시안(Taucian) 또는 차우시엔(Chausien)이라고 부른 사람도 나타났다. 그것은 물론 조선을 의미했다. 스페인 출신의 수도사 라다(Martin de Rada)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멕시코와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1575년에 중국 복건성 하문(廈門)을 방문한 뒤 스페인으로 귀국해 1576년에 『중국에 관한 보고서』를 국왕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일본 북쪽에 타우시안이 있다고 썼으며,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의 명단에 차우시엔을 포함시켰다.

---

7) 박철(朴哲). 1987. 『예수회 신부 세스뻬데스: 한국방문 최초 서구인』.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18-223쪽. 이 책은 저자의 1985년도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에 기초하고 있다. 이 논문은 스페인 외무부 문화국에서 스페인어로 1986년에 출판됐다.

8) 박천홍(朴天洪). 2008.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 서양과 조선의 만남』. 서울: 현실문화연구, 96-97쪽에 인용되어 있다.

앞의 것은 복건성의 발음이었고, 뒤의 것은 조공을 받는 중국의 수도 북경의 발음이었던 것이다. 조선을 현대 중국어 발음인 차오시엔(Chao-hsien)에 가깝게 표기한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종전에 우리나라에 대해 언급한 사람들은 프랑스 또는 이탈리아 사람들이었거나 중동지방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 몽골제국을 포함한 중국을 여행하고 거기서 들은 내용에 기초해 우리나라를 언급했다. 그러나 1548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해 언급한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이베리아반도의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대체로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정성화 2005. 39-43).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그 답을 유럽역사의 큰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포르투갈이 1510년에 인도 서해안의 고아를 점령하고 그것을 자신의 식민지로 삼은 데 이어 1511년에 오늘날의 말레이시아 남부에 위치한 말라카를 정복한 것을 시발로 유럽의 역사에는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이다. 포르투갈은 곧 극동으로까지 진출해 일본과의 교역을 개시했고 일본에 천주교를 전파하는 데 성공했다. 포르투갈은 곧 조선에 대한 교역과 선교에 관심을 쏟았으며, 포르투갈보다 반세기 늦게 스페인 역시 "대항해 시대"에 참여하면서 극동에서는 포르투갈이 선점했었던 일본을 거점으로 삼아 조선에 진출하고자 했다. 특히 1580~81년에 포르투갈을 통합함에 성공한 스페인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신대륙에 걸친 범세계적 해양무역제국을 건설하면서 조선에 대해서도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2. 예수회 선교사들이 보여준 인식의 오류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조선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오류들이 적잖다는 사실이다. 첫째, 그들은 일본에서 조선에 가기 위해서는 "바닷길로 약 10일이 소요된다"거나 또는 일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조선이 있다고 썼다. 프레네스티노 신부의 경우, 조선을 섬이라고 썼으며, 빌렐라 신부의 경우, "일본 사람들은 조선을 지나면 독일에 이른다고 말한다"고 썼다. 둘째, 그들은 조선이 타르타리아(Tartaria)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썼다. 그때 서양사람들은 몽골제국을 타르타리아 또는 타타르(Tartar)의 나라라고 불렀는데, 타타르는 성경의 『요한 묵

시록』에 나오는 전쟁도발세력이면서 동시에 야만적 식인종이라는 매우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 말이었다. 대조적으로, 빌렐라 신부는 조선사람들은 백인들이라고 썼다. 셋째, 그들은 조선이 타르타리아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선에는 "미개하고 야만적이며 난폭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썼다. 넷째, 그들은 조선에 사자가 살고 있다고 썼다. 오늘날에도 그러하지만 그때도 조선에는 사자가 없었다. 다섯째, 빌렐라 신부의 경우, 조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썼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했을까? 조선에 대한 연구와 탐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의도적인 왜곡이 개입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오류들과 관련해, 이 기록들을 깊이 연구한 박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모든 문헌적 증언을 종합해보건대, 일본인들은 포르투갈의 상선이나 서구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왜곡시켰으며 이러한 이유는 일본인들이 유럽인들과의 독점 무역과 접촉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박철 1987, 224)."

IV. 조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한 임진왜란

1. 『일본 예수회 연례보고서』에 나타난 조선

1592년 4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의한 조선침략에 따라 임진왜란이 시작되면서 조선의 사정이 일본에 훨씬 자세히 노출되기에 이르렀고, 조선에 대한 서방사람들의 인식은 자연히 과거의 인식에 비해 훨씬 정확해졌다. 『1592년 일본 예수회 연례보고서 부록편』은 일본 가까이에 꼬라이라는 나라가 있으며 꼬라이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쓰면서 꼬라이의 일본 및 중국과의 거리를 대체로 정확히 기록했다. 또 꼬라이의 동북쪽에 타타르족과 오랑캐들이 살고 있다고 썼는데, 이것은 우리가 동북야인(東北野人)이라고 불렀던 여진족을 지칭했음이 분명하다.

이 책은 또 꼬라이에는 "다양한 농산물들과 동물들이 있고" 꼬라이가 매년 중국에 조공을 바친다는 사실도 정확히 기록했다. 그것들뿐만이 아니었다. 이 책은

"〔꼬라이의〕 사람들은 매우 온순하고, 그곳에서 가져온 우수한 물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훌륭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쓴 데 이어 "꼬라이사람들은 〔중국어와는 다른〕 매우 훌륭한 또다른 언어를 갖고 있다"고 써서, "미개하고 야만적이며 난폭한 꼬라이사람들"이라는 종전의 인식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났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조선에는 지나가기 매우 어려운 거대한 사막이 있다고 한다"는 부정확한 전문(傳聞)을 덧붙였다(박철 1987, 224-242). 이러한 구절은 물론 조선은 접근하거나 여행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종전의 부정확한 인식을 강화시켰을 것이다.

2. 세스뻬데스의 조선방문

앞에서 언급된 저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중국이나 일본을 방문하고 거기서 우리나라에 대해 듣고 그것을 자신들의 책에 썼을 뿐이다.

그들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글을 쓴 서방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선 땅을 밟은 최초의 서양인으로 조선의 역사책에 기록된 사람은 포르투갈사람으로 추정되는 마리이(馬里伊)였다. 그러나 그는 제주도에 표류해왔을 뿐이며 어떠한 글도 남기지 않았다(박천홍 2008, 98-99).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글을 쓴 최초의 사람으로 스페인 선교사 그레고리오 데 세스뻬데스(Gregorio de Céspedes)를 꼽는다.

한때 우리나라 학계의 일각에서는 그가 포르투갈사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1551년에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시장 아들로 태어나 예수회 신부가 된 것이다. 그는 주로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임진왜란 때인 1593년 12월에 열렬한 천주교 신자로 아우구스티누스 〔포르투갈어로는 아고스띠뇨 쑤노까미도노〕라는 영세명을 가졌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비호 아래 대마도를 거쳐 오늘날의 진해(鎭海) 부근에 해당하는 경상도 웅천(熊川)에 들어와 1년 동안 포교했다. 이때 일본군은 자신들이 "고문가이"라고 부른 웅천에 요새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고니시 유키나가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밀고함에 따라, 그는 1595년 초에 일본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그 1년 남짓한 기간에, 그는 웅천에 머물며 약 2,000명의 일본인 장병들을 상대로 세례도 주고 강론을 하는 등 신부로서의 활동을 은

밀히 전개하면서 일본 준관구장(準管區長)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것들 가운데 네 개의 스페인어 편지들이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상태로 전해오고 있다(박철 1987, 19-30).

이 편지들을 통해 세스뻬데스는 우선 자신의 선교활동에 대해 자세히 보고했다.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그가 조선에 대해 쓴 부분을 보도록 하자. 첫째, 그는 조선을 꼬라이로 표기했다. 둘째, 그는 조선에서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일본과 명(明)나라 사이에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성사될 것 같지 않다고 보았다. 셋째, "조선의 추위는 매우 혹독하여 일본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하루종일 손발이 반쯤은 마비되어버리고 아침에는 미사를 올리기 위하여 거의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웅천의 혹한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넷째, "이곳의 카톨릭신자들은 매우 불쌍하며 굶주림과 추위, 질병 등 다른 곳의 상태와는 다른 매우 어려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썼는데, "이곳의 카톨릭신자들"은 일본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으나 조선인들의 형편 역시 같았을 것이다. 다섯째, 그는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했다고 쓰면서 분노를 표시했다. 그는 1611년에 일본의 고쿠라에서 별세했다(박철 1987, 68-84).

세스뻬데스의 설명들은 모두 사실에 부합된다. 그러나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전망, 그리고 혹한을 비롯한 생활조건의 역경에 관한 묘사 등은 조선이 사람이 살기에 매우 힘든 곳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것임에 틀림 없다.

3. 프로이스의 임진왜란 설명

세스뻬데스처럼 조선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에서 조선에 관해 들었거나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인 포로들을 직접 만났던 예수회 선교사들 역시 조선에 대한 기록들을 남겼다. 그 대표적인 선교사가 포르투갈 출신으로 예수회에 소속돼 일본에서 포교했던 루이스 프로이스(Luís Fróis)였다. 1532년에 리스본에서 태어난 그는 1548년에 예수회 신부가 됐으며, 곧 포르투갈의 식민지 고아로 가서 예수회 창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스페인 출신 신부 프란시스쿠 드 샤비에르[영어발음: 프란시스코 자비에르](Francisco de Xavier)의 제자가 됐다. 그는 고아의 예수회 책임자로 승진한 뒤 마카오에서 포교하다가 일본으로 파송돼 28년에 걸쳐 선교활동을 했다. 일본어에 능통했으며 일본정부의 고위층과 가까웠기에 일본의 국내사정

에 밝은 서양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는 결국 1597년에 일본에서 별세했다.

이러한 배경의 프로이스는 1549년부터 1594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편년사 형식의 『일본사』를 집필했는데, 이 책의 70장으로부터 79장까지에서 임진왜란 시기의 조선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루이스 프로이스 1999). 그의 설명들은 그때까지 서방사람들이 조선에 관해 제시한 설명들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므로, 여기서 자세히 소개될 가치가 있다.

프로이스는 우선 조선을 일본사람들은 꼬라이(Coray)의 땅이라고 부르고 포르투갈사람들은 꼬리아(Coria)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선의 지리와 습속 및 대외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설명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인들은 북쪽과 동북쪽으로 타타르 및 오랑캐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조선인들은 그들을 해도 없고 달도 없는 사람들로 여긴다. 그들은 한때 동맹을 맺고 조선을 상대로 싸웠으나 조선인들은 잘 이겨냈다.
2. 조선은 쌀과 밀을 많이 생산한다. 배 호두 무화과 밤 사과 잣 등의 과일들을 생산하며 꿀을 많이 생산한다. 약간의 비단 그리고 많은 면화와 아마를 생산한다. 금과 은은 부족하다고 한다. 조선에는 많은 수의 말과 소, 그리고 좋은 조랑말과 나귀가 있으며, 호랑이가 많고 다른 다양한 동물들이 있다. 국토에서 수확하는 것은 모두 임금이 거둬들이고 그 뒤에 농부들에게 생계를 위해 식량을 준다.
3. 조선사람들은 하얗고 명랑하며 대식가들이고 힘이 세다. 조선사람들은 활과 화살에 매우 능란한데, 활은 터키 활처럼 작다. 얘기에 의하면, 조선사람들은 독을 바른 화살을 사용한다.

여기서 제3항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비렐라 신부의 기록을 연상시킨다. 빌렐라가 조선사람들을 백인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프로이스에서는 조선사람들은 하얗다는 표현으로 등장한 것이다. 또 빌렐라가 조선사람들이 활을 잘 쏜다고 썼던 것이 프로이스에서도 되풀이됐다. 프로이스가 조선사람들을 대식가라고 묘사한 부분이 흥미로운데, 조선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묘사는, 우리가 제2회에서 보게 되듯, 뒷날 조선에서 생활했던 서양인들의 관찰에서 되풀이 된다. 프로이스의 설명은 계속됐다.

1. 조선사람들의 선박들은 강하고 크며 위로 뚜껑이 있다. 화약솥들과 화기들을 사용하며, 쇠로 만든 사석포(射石砲) 같은 것을 구형탄환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거의 남자의 넓적다리 굵기의 화살모양의 나무에 물고기의 꼬리처럼 갈라진 쇠를 박아서 집어넣는데 부딪치는 것은 모두 절단하기 때문에 아주 격렬하다. 그밖의 무기들은 약하며, 특히 칼은 짧고 얼마 못가며, 약간의 소총을 개머리판 없이 사용한다고 한다.
2. 조선의 국왕은 가장 훌륭한 지방의 가장 중요한 도시에 있는 매우 큰 궁전에서 생활한다. 귀족들과 부자들은 기와로 덮인 좋은 집에 살며 아주 좋고 화려한 돗자리를 사용한다. 이 돗자리는 수공으로 잘 장식되어 있어서 일본인들과 이곳에 오는 포르투갈인들이 높이 평가한다. 조선인들의 수공품들은 아주 뛰어나다. 그들은 수공품들에서 좋은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집들은 짚으로 덮여 있는데, 매우 깨끗하지 않다.

이 제2항 역시 우리의 관심을 이끈다. 첫째, 귀족들과 부자들이 사는 집들은 기와로 덮인 좋은 집들이며 서민들이 사는 집들은 짚으로 덮인 초라한 집들이라는 대비는, 우리가 이 글의 뒷 부분에서 그리고 제2부에서 보게 되듯, 서양인들의 기록들에서 되풀이 된다. 둘째, 조선사람들이 수공에 능하다는 관찰 역시 우리가 앞으로 살필 서양인들의 기록들에서 되풀이 된다. 프로이스의 설명을 계속해서 들어보기로 한다.

1. 국토의 끝은 매우 춥다.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난로를 사용한다. 강들은 얼어붙고 얼음은 대단히 두껍다.
2. 조선인들이 중국에 공물을 바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을 두려워한다. 조선은 중국의 것과 똑 같은 글자를 사용한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말은 중국인들의 말보다 발음하기가 더 쉽다. 학자들과 궁중귀족들이 쓰는 말은 평민들이 쓰는 말보다 교양 있고 세련돼 있다.
3. 조선에서 대마도를 경유해 일본으로 오는 가장 흔한 상품들 가운데 하나는 매우 아름답고 큰 호랑이가죽이다. 조선은, 상품을 팔기 위해 매년 그곳으로 가는 300명의 일본인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외국과의 무역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에 일본으로 오던 포르투갈의 배들이 바람이나 조류로 말미암아 방향을 잃고 항로를 벗어나면서 조선의 항구에 도착하면, 즉시 많은 무장선박들이 나와서 그들과 전투를 하며 어떤 이유나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을 조선의 항구와 땅에서 완전히 내쫓는다.

>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조선은 일본에 면한 해안요새들을 잘 준비시켜놓고 있다(박철 1987, 35-38).

이 마지막 항은 조선의 "배외정책" 또는 "쇄국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조선의 이러한 모습은 그 이후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관찰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벌어졌던 일본과 조선 사이의 외교교섭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그의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1589년 음력 6월에 대마도 도주(島主) 소오 요시토모(宗義智)가 승려 겐소(玄蘇)와 함께 서울에 도착해 8월 28일에 선조를 알현한 사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1590년 음력 11월에 조선의 정사 황윤길(黃允吉)과 부사 김성일(金誠一)이 교토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회견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프로이스는 조선의 사절들이 "일본인들의 개념으로는 빛을 발하지 못했다"고 쓴 다음에, 〔1591년 음력 6월에 소오 요시토모가 부산에 도착해〕 "일본은 중국을 정복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본군이 조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선국왕이 허락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도요토미의 뜻을 전달한 사실, 그러나 조선국왕은 자신과 자신의 선조들은 언제나 동맹과 우의로써 중국황제와 연합해왔고 그에게 공물을 바쳐왔으며 어떤 경우에도 그에게 그렇게 부당한 짓과 배반을 할 수 없고 그러한 통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대답한 사실 등을 기술했다(박철 1987, 38-39).

조선국왕의 거부를 구실삼아 도요토미는 조선침공을 개시했다. 프로이스는 전황을 자세히 기술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조선인 군인들의 용맹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했다:

> 조선인들은 훌륭한 무사들이고 그들의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많아서 거의 전부가 죽을 때까지 싸웠으며, 그들 가운데 생포된 몇 사람만 남았다. 그들 사이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장수였다(박철 1987, 41).
>
> 〔…〕 〔일본군의 한〕 젊은이가 조선인들의 장수들 가운데 하나인 말을 타고 온 매우 중요한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그는 그것을 명예의 문제로 여겼으며 자신의 석방에 전혀 동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그를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장수는 목을 내보이면서 자신의 머리를 자르라고 손짓을 하기만 하여서, 일본인들은 결국 그렇게 하였다(박철 1987,

47-48).

그는 조선의 수군이 용맹하게 싸워 일본함대들을 "완전히 격파"시킨 사례들도 기록했다. 그러나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이름 그 자체를 기록에 남기지는 않았다. 프로이스는 조선여성의 정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했다:

> 고귀하고 정절한 여인들은, 예쁜 용모를 감추려고, 일부는 솥과 남비의 그을음을 얼굴에 칠하였는데, 그러면 일본병사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다른 여인들은 천하고 열등한 의복으로 가장했다. 〔…〕 귀하고 용모가 단정한 남녀아이들은, 어머니들이 가르쳐준대로, 일부는 절름발이인 체 하여 그런 사람처럼 보이게 하였다(박철 1987, 41).
>
> 〔…〕 동래(東萊)에서, 몇 달 전에 23살 가량의 임금의 한 조카딸하고 결혼한, 동래 요새의 장군이 죽었는데, 이 여인은 죽은 사람 위에 뛰어들어 서럽고도 감탄할 만하게 통곡을 했다. 이 여인은 포로가 되어 〔도요토미〕에게 선물로 보내어졌으나, 도중에 극도로 심한 저항을 하고 〔도요토미〕 앞에서 아주 엄청나게 통곡을 하는 바람에 그녀를 불쌍히 여겨 조선으로 돌려보냈다(박철 1987, 42).

프로이스는 전쟁 도중인 1592년 여름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진행됐던 평화협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이것과 관련해 흥미 있는 대목은 명나라 협상대표 심유경(沈惟敬)이 일본 협상대표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한 말이다. 심유경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평화가 이룩될 수만 있다면 "조선 땅을 일본사람들이 차지하거나 원래의 조선인들이 차지하는 것은 똑같이 중국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심유경은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을 아주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그들을 조선 밖으로 내쫓기 원하고 있었다"고 덧붙이면서, 도요토미가 원한다면 도요토미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선국왕을 일본으로 보내겠다고 제의했다. 프로이스는 심유경의 이러한 발언들이 "끝이 없는 이런 저런 거짓말들"이었다고 논평했다(박철 1987, 70-71).

그러나 조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낱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심유경의 발언들이 일본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들로 일관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프로이스에 따르면, 1593년 음력 4월 20일에 명나라 원군의 사령관 이여송(李如松)이 서울에 입성한 직후, "이번 기회에 중국인들은 조선왕국을 차지하고 중국에 합병시켜

서, 다른 많은 왕국들에서 관습적으로 하는 것처럼, 〔중국의〕 대신들이 다스리면서 조선임금에게는 어떤 지역에다가 적당한 안락한 생활을 주려고 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다(박철 1987, 83)." 이 얘기들의 근거가 무엇인지 프로이스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얘기들의 바탕에는 조선무시의 태도가 깔려 있음이 사실이다.

심유경의 거짓말들에도 불구하고 도요토미는 그를 꽤 믿었던 것 같다. 프로이스에 따르면, 도요토미는 "조선의 반을 그에게 넘겨주는 평화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초조히" 기다렸다. 이 평화협상이 성사되면, 도요토미는 자신에게 할양될 "조선의 반에 일본인들을 이주시키고" 일본인들의 이주로 공백이 발생한 지역들에는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 통치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박철 1987, 79). 그러나 이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결국 도요토미의 병사로 일본의 조선침략전쟁은 막을 내렸다.

4. 『선교사들의 이야기』에 나타난 조선

이러한 기록들에 세스뻬데스의 편지들, 세스뻬데스 이전에 조선에 대한 전문들을 담은 선교사들의 편지들, 그리고 인도와 중국 및 일본 등지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 신부 루이스 데 구스만(Luis de Guzman)은 1601년에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출판했다. 이 책 제12권 제14장에서 구스만 신부는 다음과 같이 썼다: "꼬라이사람들은 온순하고 영리하며 흰색의 피부를 갖고 있으며 활을 쏘는 데 능숙하다(박철 1987, 93)."

이 책은 또 조선인 포로들을 상대로 선교사들이 강론하고 영세를 준 사실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다. 특히 고니시 유키나가의 딸로 대마도 도주의 아내가 된 독실한 천주교 신자 도냐 마리아(영세명)가 조선인 포로들 가운데 "꼬라이 국왕의 신하의 아들"인 어린이를 자신의 자식처럼 길렀고 마침내 신학교로 보내 신부로 만든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정성화 2005, 37-39).

5. 카를레티의 설명

선교사가 아닌 무역상 역시 일본 나가사키의 노예시장에서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유서 깊은 상인

집안 출신의 안토니오 카를레티(Antonio Carletti)와 프란체스코 카를레티(Francesco Carletti) 부자가 그들이다(곽차섭 2004, 3장). 그들은 1594년부터 스페인을 떠나 중남미를 거치면서 주로 노예와 은괴를 사고팔았다. 그들은 거기서 일본으로 들어가고자 했는데 이 시점에서 일본은 오직 포르투갈사람들에게만 교역을 허용했으므로 밀항선을 타고 1597년 6월에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그들은 1598년에 거기서 조선인 소년 포로 다섯 명을 싼 값에 사서 세례를 받게 한 뒤 함께 마카오로 갔다. 거기서 아버지가 죽자 아들은 귀국을 결심하고 포르투갈 배를 탔으며 포르투갈의 식민지 고아로 가서 네 명을 풀어주었는데 그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남은 기록이 없다.

프란체스코는 나머지 한 소년을 데리고 1606년에 고향 피렌체로 돌아와 그에게 안토니오 코레아(Antonio Corea)라는 이름을 지어줌과 아울러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뒷날 프랑드르 출신의 화가로 17세기 바로크 화풍을 대표했던 루벤스(Peter Paul Rubens)의 드로잉 「한복입은 남자」의 주인공인 것으로 보도되면서 한국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여행기를 써서 피렌체의 통치자에게 바쳤다. 필사본으로 전승되어오던 이 여행기는 95년 뒤인 1701년에야 『나의 세계일주기』로 출판됐다. 여기서 그는 조선을 코레아(Corea) 또는 치오시엔(Cioscien)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는 조선을 이 나라의 수도이면서 왕도(王都)라고 불러 나라의 이름과 수도의 이름을 혼동하는 오류를 보여주었다(곽차섭 2004, 127-145).

6. 로드리게스의 설명

구스만에 이어 조선에 대해 언급한 또 한 사람의 예수회 신부는 포르투갈 출신의 로드리게스(Tsuzu Joao Rodrigues)였다. 일본어 구사가 뛰어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통역을 맡기도 했던 그는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마카오에 정착한 때인 1620~21년과 1633년에 필생의 역작인 『일본에서의 교회의 역사』를 집필했는데, 이 책은 그 이전의 책들에 비해 조선에 대해 훨씬 정확히 설명하고자 시도했다(정성화 2005, 62-84).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에서 짧게 그리고 제3부에서 제법 길게 조선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조선의 지리에 대해 "맑은 날에는 일본에서도 보이며 순풍만 분다

면 일본에서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주변국들을 야만국들로 보며 그래서 조선을 동이(東夷)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또 중국의 문화가 조선에 유입됐고 그래서 두 나라의 문화에는 비슷한 점들이 많다고 지적했으며, 일본의 문화는 조선으로부터 전수받아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마도가 지금은 일본에 속해 있으나 원래는 조선의 영토였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사람들은 서양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서양사람들로부터 배우고자 함에 비해 조선사람들은 서양사람들을 경멸하며 외국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썼다.

그러나 조선의 역사에 대한 그의 다른 서술들은 부정확했다. 조선을 "중국의 한 왕인 기자(箕子: Kishi)가 세웠다"고 쓴 것이 그 대표적인 보기였다. 정성화 교수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기자조선설을 유럽에 알린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정성화 2005, 75)." 그가 또 일본이 한 때 조선의 가야(伽倻)에 임나부(任那府)를 세워 통치했다고 쓴 것 역시 역사적 사실들에 어긋난다. 그는 기자조선설에 관해서는 중국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임나가야설에 관해서는 일본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소개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성화 교수는 "로드리게스는 […] 후세 서양인들이 한국사를 보는 시각을 왜곡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정성화 2005, 62-79).

7. 영국사람들과 네덜란드사람들의 조선 관찰

그사이 강대국들 사이의 제국주의적 패권경쟁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1588년에 영국은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함으로써 스페인의 패권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으며, 이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영국과 네덜란드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기에 이르렀다. 이미 아시아국가들과의 무역을 추진해온 이 두 해양국가들은 더욱더 활발히 아시아로의 진출을 도모했으며 아시아로의 진출을 단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항로의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우선 네덜란드 출신의 반 리쇼텐 [또는 린스호턴?](Jan Huygen van Linschoten)이 개척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스스로 새로운 항로의 탐사에 나서기도 했으며, 『여행기록』과 『항해기』를 각각 1595년과 1596년에 출판해 유럽 항해사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다(정성화 2005, 48-50). 그는 이 책들에서 조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의 책에서는 일본이 교역하는 일본 북쪽의 나라로 코오라이(Cooray)가 있다고 썼으며, 뒤의 책에서는 이 나라를 섬으로 묘사하기도 했고 반도로 묘사하기도 했다. 조선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선이 섬이라는 인식은 1705년의 지도를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그 이후 반도라는 인식이 고정된다(정성화 2005, 48-49).

영국의 경우, 어느 다른 사람보다도 리처드 해클루트(Richard Hakluyt)가 1589년에 출판한 『중요한 항해들의 기록들』을 통해 조선을 코레아(Corea)라는 이름으로 유럽 전역에 알렸다. 옥스포드대학교에서 지리학을 전공했으며 일생을 통해 아시아와 아메리카 신대륙 개척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그는 아시아 시장이 영국의 모직물 수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관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책들을 번역하거나 편집해 출판했다. 거기에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핀 프로이스 신부의 글들도 포함됐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영어권에 조선에 대해 널리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정성화 2005, 55-60). 이때로부터 11년이 지난 1600년에 영국은 아시아지역에 대한 무역의 총괄기관으로 동인도회사를 세우면서 조선을 코라이의 나라(Country of Coray)로 표기했다(오인동 2008, 122).

해클루트에 이어 또 한 사람의 영국인 새뮤얼 퍼커스(Samuel Purchas) 역시 여행기를 출판했다. 『퍼커스 순례기: 세계의 관계』가 그것이다. 그는 1613년과 1617년에 출간한 이 책을 1625년에 개정해 새 판을 출간하면서 거기에 조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그 설명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예수회 선교사들의 편지들을 되풀이한 것들이었을 뿐이었다(오인동 2008, 162).

V.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로부터 조선으로의 항해가 시작되기 이전까지의 시기에 조선을 언급한 서방사람들

1. 중국사 속에서의 조선

위에서 살폈듯,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은 일본에서 활동하던 스페인 및 포르투갈 선교사들의 책들을 통해 서방세계에 알려졌다. 그들에 이어,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로 중국에서 포교하던 알바로 세메도(Alvaro Semedo)는 1640년에 포르투갈어로 『중국사』를 출판했는데, 거기서 만주족이 명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하던 때 조선이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의 외교적 문제로 고민하던 모습을 담았다. 이 책의 영역본이 1655년에 출판되면서 조선의 그러한 형편이 영어권에 알려졌다.

비슷한 얘기는 만주족의 청(淸)나라에서 활동하던 예수회 소속 이탈리아의 선교사 마르티노 마르티니(Martino Martini)가 1654년에 라틴어로 출판한 『만주족의 중국침략사』에서 되풀이 됐다. 거기에는 정묘호란(丁卯胡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언급됐다(오인동 2008, 162-163). 그는 1655년에 『새 중국전도(中國全圖)』를 출판하면서, 중국의 이웃나라들에 조선을 포함시키고 조선을 "풍요로운 땅"이라고 묘사했다. 밀과 쌀 및 인삼이 풍부하게 산출되며 금과 은이 풍부하게 매장됐고 동해안에서는 진주를 채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박천홍 2008, 103-104).

2. 하멜의 『표류기』

이러한 방식으로 조선은 서방세계에 알려졌으나, 조선 하나만에 대해 설명한 서양인의 최초의 책은 1668년에 출판된 네덜란드인 하멜(Hendrick Hamel)의 『표류기(漂流記)』이다. 이 책이 오로지 조선 하나를 다룬 책이라는 점에서 정수일 교수는 이 책을 서양인에 의해 쓰여진 조선에 관한 최초의 전서(全書)라고 불렀고, 주로 다른 얘기들을 쓰는 가운데 조선을 언급한 조선에 관한 부분서(部分書)와 구별했다(정수일 2002, 283).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책에 대해 훨씬 자세히 살피게 만든다.

우리가 아래에서 보게 되듯, 하멜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제주도에 표류해 본토로 압송된 뒤 제주도 체류기간을 포함해 모두 만 13년 28일을 조선에서 살다가 탈출했기에 『표류기』라기보다는 『표착기(漂着記)』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오랜 동안 『표류기』로 번역되어왔기에 그 관행을 따르기로 한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던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책의 판본들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당시 네덜란드는 세계 제일의 해양무역대국이어서 네덜란드선원들의 미지의 나라에서의 13년에 걸친 유수(幽囚)와 탈출은 큰 화제가 됐다. 그리하여 탈출 그 다음해인 1668년에 네덜란드의 두 출판사

가 앞을 다퉈 그들의 진귀한 경험을 책으로 펴냈다. 하멜에 앞서 조선에 표류했던 서양인으로 포르투갈 상인 조앙 멘데스(Joao Mendes)가 있었다. 선조 37년에 해당되는 1604년 6월에 그는 경상도지방에 표류하다가 붙잡혔던 그는 4개월만에 중국으로 호송됐는데,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에 대한 짧은 기록이 조선의 문헌들에 남아 있을 뿐이다(박천홍 2008, 101-103). 그러했던 만큼, 하멜의 『표류기』는 조선에 관한 서양인의 최초의 전서여서 공전의 인기를 불러모았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 책을 하멜이 출판을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가 조선을 탈출해 나가사키에 체류하던 때 부교(奉行)라는 직명을 지닌 일본조사관들의 심문에 응하면서 기억에 의존해 쓴 것이다. 그는 『스페르베르호가 켈파트 섬(조선국왕 소유)에서 실종된 1653년 8월 16일부터 이 배의 승무원 8명이 일본 나가사키로 탈출한 1666년 9월 14일까지 이 배의 생존자인 장교들 및 선원들이 겪었던 일들과 조선왕국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나라 민족의 풍습과 그 나라에 대한 일지』라는 긴 제목의 이 기록을 자신의 소속 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바타비아(Batavia: 오늘날의 자카르타) 주재 총독에 제출했으며, 그는 그것을 나가사키의 행정당국이 작성한 보고서와 더불어 약간의 설명을 붙여 본국의 본사에 보고했다.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의 출판사들은 바로 이것들을 근거로 책을 펴냈던 것인데, 로테르담판에 뒤따른 암스테르담판은 자의적 편집으로써 원본으로부터 꽤 많이 이탈됐다는 평을 들었다.

이 책은 곧바로 커다란 인기를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다른 두 출판사가 1669년에 새 제목으로 다시 출판했다. 번역이 뒤따랐다. 1670년에 프랑스어판이 파리에서 출판됐으며, 1671년에 독일어판이 뉘렌베르크에서 출판됐고, 1704년에 프랑스어판을 번역한 영어판이 런던에서 출판됐다.[9] 그 이후에도 1700년대에 프랑스어판 두 종이 출판됐고 독일어판이 새롭게 출판됐다. 1800년대에는 영어판 세 종이 출판됐으며, 1900년대에는 후틴크〔또는 회팅크〕(B. Hoetink)판으로 널리 알려진 새로운 네덜란드어판이 출간됐고(1920년), 영어판 세 종이 출판됐으

9) 영어본으로 대표적인 것은 *An Account of the Shipwreck of a Dutch Vessel on the Coast of the Isle of Quelpaert, Together with the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Corea (1668)*이다. 이 책보다 훨씬 널리 읽힌 영역본은 다음이다. *Narrative of an Unlucky Voyage and Shipwreck in the Coast of Corea*. 이것은 Awnsham Churchill (ed.). 1732. *A Collection of Voyages and Travels* London: John Walthoy에 포함됐다. 이 책을 흔히 처칠판이라고 부른다.

며 일본어판 한 종이 출판됐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여러 언어들로 출판되는 과정에서,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하멜이 쓰지 않은 얘기들도 들어갔고 과장도 포함됐다. 어떤 판본은 조선과는 전혀 관계 없는 동남아시아의 어떤 왕의 식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조선에 사는 동물들로 악어와 코끼리가 포함된 삽화를 게재했다. 심지어 하멜이 하지도 않은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악어"의 얘기도 포함시켰다. 그래서 이 책을 정밀하게 검토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하멜이 과연 조선에 갔었느냐는 의문이 한때 제기되기도 했다(정성화 2005, 85-93).

국내에서는 암스테르담판의 프랑스어 번역판에 처칠의 영역판을 대조하면서 이병도(李丙燾) 교수가 처음으로 방역본을 출판했다.[10] 이어 박윤희(朴允熙)가 레드야드(Gari K. Ledyard) 교수의 영문판을 대본으로 방역판을 출판했으며,[11] 신복룡 교수가 영문판을 대본으로 방역본을 출판했고,[12] 강준식(姜埈植) 작가가 후틴크판을 토대로 삼되 관련자료들을 살피며 해설서를 출판했다.[13] 이들은 모두 하멜이 조선에 표착한 것이 사실이었다는 전제 아래 역주(譯註)했다. 대조적으로, 해군장교 출신의 최두환(崔斗煥) 교수는 하멜은 조선에 표착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표착했다는 해석 아래 기존의 해설들을 정면으로 뒤집는 책을 출간했다.[14] 정성화 교수는 여러 판본들을 비교한 논문을 발표했다(정성화 2005, 85-93). 필자(김학준)는 우선 영역본들 가운데 레드야드 교수의 역주본[15]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제2회

---

10) 이병도. 1954[1975]. 『란선(蘭船) 제주도 난파기: 부(附) 조선국기(朝鮮國記)』. 서울: 일조각. 이 교수는 193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단학보』에 역재했으며, 이것이 1946년에 박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이 교수는 자신의 1954년 역본을 개역해 1975년에 다시 출판했는데, 개역의 저본으로 그리피스의 영역본을 사용했다. 이 개역본에는 그리피스의 영역본 전문이 포함되어 있다.

11) 박윤희. 1975. 『하멜표류기: 조선왕국견문록』. 서울: 삼중당. 이 책은 삼중당문고 125권이다.

12) 신복룡. 1999. 『하멜표류기』. 서울: 집문당. 이 책은 뒤 알드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전』 및 홀 지음 신복룡 정성자 역주, 『조선서해탐사기』와 합본되어 있다. 필자(김학준)는 이 책의 2쇄(2005년)를 참고했다.

13) 강준식. 1995. 『우리는 코레아의 광대였다: 하멜의 조선기행』. 서울: 웅진출판. 강준식. 1995[2002]. 『다시 읽는 하멜표류기: 350년 전 네덜란드와 코레아의 운명적인 만남』. 서울: 웅진닷컴.

14) 최두환. 2003. 『신 하멜표류기』. 서울: 도서출판 우석.

15) Gari Ledyard. 1971. *The Dutch Come to Korea*. Seoul: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in

에서 살필 그리피스 교수의 역주본을 바탕으로 삼되 위에서 열거한 방역본들 및 해설서들을 참고하면서 이 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3. 하멜의 조선에서의 생활

하멜은 1630년을 전후한 어느 시점에, 또는 1630년에, 그때 조선에서는 아란타(阿蘭陀) 또는 하란타(河蘭陀) 또는 하란(荷蘭)으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호르쿰(Gorccum)에서 태어났다. 그는 네덜란드가 경영하던 세계적 보석 및 향료 무역회사인 동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그때 네덜란드의 주요한 무역거점들 가운데 하나였던 바타비아와 타이완 (그때는 포르투갈어로 "아름답다"는 뜻의 Formosa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을 왕래하던 스페르베르(Sparwer: 또는 스파르웨르: 영어로는 스패래오 호크 Sparrow Hawk: 새매)라는 이름의 상선에서 장교급인 서기로 근무하고 있었다. 엄청난 가치의 다양한 화물들을 싣고 대포 등으로 무장한 이 배는 바타비아를 떠나 타이완에 도착했다가 다시 바타비아로 돌아가기 위해 그때 일본이 서양세계에 개방했던 유일한 항구인 나가사키를 향해 항해하던 때인 1653년 8월 중순에 동중국해의 어느 지점에서 며칠에 걸쳐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결국 난파했다. 선원 64명 가운데 28명은 익사했고 하멜을 포함한 36명이 8월 15일에 어느 한 섬에 표착했다.

그들은 곧 나침반을 통해 자신들이 켈파트(Quelpart 또는 Quelpaert)라고 불러온 섬에 상륙했음을 알았다. 이 섬은 물론 제주도였으며, 그들이 난파한 지점은 오늘날의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大靜邑) 산방산(山房山) 앞 바다, 쉽게 말해, 모슬포(摹瑟浦) 앞 바다였다. 그들은 곧 제주도관청에 구금됐으며 조사를 받았다. 말이 서로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나가사키"를 거듭 외치며 나가사키로 보내줄 것을 간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관청이 이들에 대해 중앙정부에 보고하자 중앙정부는 1627년에 조선에 표착한 이래 조선조정을 위해 일하던 네덜란드인 얀 얀스 벨테프레(Jan Janse Waltevree)를 현지에 보내 통역을 하게 했다.

박연(朴燕 또는 朴延 또는 朴淵)이라는 조선식 이름을 갖고 조선여성과 결혼해

Conjunction with Taewon Publishing Company. 이 책에 따르면, 하멜의 이름 헨드릭은 서방권의 책들에서 Hendrik 또는 Hendrick 또는 Henry로 표기됐다.

자녀까지 두고 살던 벨테프레는 이들이 네덜란드사람들인 것을 알았다. 조선에 표착한 때로부터 무려 26년만에 처음으로 동포를 만난 것이다. 벨테프레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어서 어떤 식으로라도 감정을 표시했을 터인데, 하멜은 이 점과 관련해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정조(正祖) 시절에 이조판서를 역임한 윤행임(尹行恁)의 글에 따르면, "연(延)은 그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본 뒤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자기 옷깃이 다 젖을 때까지 울었다(강준식 1995[2002], 40)." 그러나 벨테프레는 조선에 관해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조선에서 별세한다. 그가 언제 별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벨테프레는 그들에 대해 곧바로 중앙정부에 보고했으며, 이들은 1654년 5월 하순에 전라도와 충청도 및 경기도를 거쳐 한양으로 압송됐고 결국 궁정에 들어가 국왕 효종(孝宗)을 알현했다. 이들은 효종에게 일본 나가사키로 보내주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출국을 간청했으나 효종은 이 나라에 일단 들어온 외국인은 절대로 출국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곧 훈련대에 편입돼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왕을 호종했다. 다른 한편으로, 서양인에 흥미를 가진 고관대작의 집들에 불려다니며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주기도 하는 등 광대노릇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처량한 생활 속에서 늘 죄수 취급을 받으며 살게 되자 몇몇은 탈출을 시도했다. 1655년 3월에 청나라 사신이 한양에 도착한 계제를 이용해 그에게 자신들의 신원을 밝히고 중국으로 보내줄 것을 호소했던 것이다. 청나라 사신은 그들의 호소를 받아들이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조선조정으로부터 뇌물을 받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것이 빌미가 돼 그들의 생활조건은 더욱 나빠졌다. 효종의 다음 국왕인 현종(顯宗) 때인 1655년 여름에 전라도의 여수 순천 남원 강진 등지로 분산유배된 것이다. 하멜은 강진으로 유배됐다. 그 사이 20명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죽었으며, 결국 16명만 남았다.

그들 가운데 하멜을 포함한 8명은 탈출을 결심하고 여러 해에 걸쳐 품팔이도 하고 구걸도 해서 돈을 모아 작은 배 한 척을 샀으며, 마침내 감시자들을 속이고 1666년 9월 4일 야밤에 여수에서 배를 띄워 9월 6일에 나가사키 부근의 한 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칼을 찬 몇몇 원주민들은 곧바로 그들을 나가사키의 행정당국에 넘겼으며, 나가사키 행정당국은 그들을 심문한 뒤 나가사키에 개설된 네덜란드의 상관(商館)으로 인계했다. 그들은 배를 수선하는 등 여러 일들을 하며 나가사키에

머문 뒤 10월에 바타비아로 돌아갔다. 하멜을 제외한 7명은 거기에 머물렀다가 귀국 길에 올라 1668년 7월에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으며, 조선에 남아있던 8명 가운데 귀국을 희망하지 않은 한 명을 제외한 7명도 1668년 6월에 일본에 인도된 뒤 7월에 암스테르담에 도착했다. 하멜은 1670년에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692년에 고향에서 별세하는데, 그때까지 조선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글도 남기지 않았다.

4. 하멜의 조선에 관한 설명들

그러면 하멜은 이 책에서 조선을 어떻게 묘사했던가? 우선 지적돼야 할 것은 이 책이 약 50-60쪽의 작은 분량이라는 사실이다. 그것 가운데 절반 정도는 난파와 표착과 탈출의 경위에 관한 설명이어서, 조선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결코 길지 않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했듯, 하멜의 관찰은 객관적이다. 특히 그가 사실상 죄수의 신분으로 13년을 보냈기에 "아래로부터의" 관찰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또 조선의 여러 곳들을 보았기에 왕실을 비롯해 지방의 감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상류층의 생활에서 서민들의 생활까지 살필 수 있었기에 결혼과 장례 등 백성들의 관습은 물론 고관들의 생활양식을 포함해 "광범위한" 관찰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었기에 뭣을 아는 체 하며 따로 덧붙이거나 논평한 것이 없어 관찰의 원자료적 성격이 살아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하멜의 관찰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특히 조선의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와 관련해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그는 중국의 황제가 조선의 국왕보다 높다고는 하지만 조선의 국왕이 국내에서는 절대적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가의 형벌이 엄하다고 보면서, 특히 왕에 반역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심한 고문과 극형이 뒤따른다고 보고했다. 둘째, 그는 조선이 중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는 그때 만주족이 지배하고 있던 중국을 타타르인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타타르인들이 1년에 두 세 차례 조선에 와서 공물을 받아갔다고 진술하면서, 동시에 조선인들은 일본에게도 공물을 바친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선의 무역은 대부분 일본 그리고 대마도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동포인 벨테프레를 논외로 할 때 타타르인들과 중국인들 및

일본인들을 빼놓고는 어떤 외국인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때 조선이 철저한 쇄국정책을 쓰고 있었음에 비추어, 그리고 서방세계의 어떤 나라도 조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았음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였다고 하겠다. 셋째, 그는 중국과 일본 외에 꼭 한 차례 포르투갈에 대해 언급했다. 담배를 비롯한 몇몇 포르투갈 물품들이 일본을 거쳐 조선에 들어왔고 조선사람들이 담배를 즐겨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그는 조선에서 인삼이 많이 생산되며, 조선은 이것을 중국에 공물로 바치고 일본 및 중국과의 무역품으로 삼고 있다고 진술했다. 다섯째, 조선은 과학을 발전시키지 못했으며 회계장부의 대차계정기록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여섯째, 조선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다고 진술했다.

그러면 이 책은 서방세계의 독자들에게 조선에 대해 어떤 인식을 심어주었을까? 이 물음에 대해 우리는 정확히 대답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추측들은 가능할 것이다.

첫째, 조선인들의 자녀교육열이 대단히 높으며 조선인들은 예의범절이 바르다고 설명한 부분은 좋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조선은 효율적인 행정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 부분 역시 좋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둘째, 조선인들은 절도와 사기 그리고 거짓말에 능해 그들을 믿을 수 없으며 조선인들은 미신을 믿고 있다고 설명한 대목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더구나 조선인들은 유약하고 강직함이나 용기가 없으며 겁이 많고 겁이 많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을 그대로 믿은 서양사람들은 조선인들을 깔보기조차 했을 것이다. "조선인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진술한 대목은 앞의 진술과 관련지어 읽는 경우 조선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셋째, 하멜은 조선에서 산악은 험준하고, 중국으로 가는 경우 육로는 매우 위험하다고 진술함과 아울러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맹수들이 출몰하는 탓에 해로를 많이 이용한다고 진술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프레데릭 불레스텍스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조선이〕 섬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산으로 가로막혀서 통로가 없는 나라, 대부분 산으로 뒤덮인 반도, 따라서 접근이 매우 어려운 나라로 보인다. 야생동물은 험준한 지형, 혹독한 추위에 첨가되는 또하나의 요소로, 〔조선의〕 '맹수들'이라는 주제는 19세기 말까지 반복해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통과하기 어려운 길, 야생동물, 그리고 매서운 추위라는 세 가지 요소는 산으로 덮인 폐쇄된 나라 〔조선의〕 최초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불레스텍스 2001, 34)."

넷째, 하멜은 자신들이 조선의 왕과 신하들에게 여러 차례 석방을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어떤 외국인도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 역시, 불레스텍스 교수에 따르면, "고립과 폐쇄라는 주제와 닿아 있다(불레스텍스 2001, 36)." 다섯째, 조선을 네덜란드어로 코에레(Coeree) 또는 코레(Coree)라고 표기하면서 조선을 조선국(朝鮮國)의 발음에 따라 티오센국(Tiocenkouk)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조선의 이름을 다시 서방세계에 알리는 데 이바지했다. 실제로 이 책에 처음 등장한 티오센(Tiocen)은 그 이후 다른 지도학자들에 의해 채택됐다. 그는 이 나라의 수도가 시올(Sior)이라고 표기했는데, 이것이 아마도 조선의 수도 이름이 오늘날의 서울에 가깝게 표기된 첫 사례였을 것이다(오인동 2008, 129).

하멜이 묘사한 "지리적으로 폐쇄적이며 험난하고 맹수가 우글대는 조선"의 모습은 그의 『표류기』가 처음 출판된 때로부터 15년이 지난 시점인 1683년에 출판된 페르디낭 베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신부의 『중국 황제의 타타르 여행』에서 되풀이 됐다. 벨기에 출신인 이 선교사는 1682년에 청나라 황제 강희제(康熙帝)를 따라 황제의 고향인 만주를 여행하다가 심양(瀋陽)에서 조선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조선사람들은 자신들이 포획한 바다표범을 갖고 황제를 알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계제에, 그는 조선과의 국경지대에 접근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는 자신의 책에서 그 일대가 사방으로 산과 골짜기로 막혀 있으며 호랑이와 곰을 비롯한 맹수들이 득실대고 있는 곳으로 설명했다(불레스텍스 2001, 45).

5. 프랑스 신부들의 관찰들

레지스 신부의 『코레의 지리와 역사에 관한 관찰』. 이 책에 이어 프랑스 예수교 소속의 프랑스인 신부 장 밥티스트 레지스(Jean-Baptiste Régis)는 『코레의 지리와 역사에 관한 관찰』을 집필했다. 그는 조선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은 채 중국에서 시무하면서 이 글을 썼던 것으로, 이 글은 예수교 소속의 프랑스인 신부 뒤 알드(Jean Baptiste Du Halde)가 1735년에 프랑스어로 출판한 『중국제국 및 청제국의 지리와 역사에 관한 서술』 전 4권[16] 가운데 제4권에 『코레아 왕국』이라는 제목 아래

편집된 상태로 포함됐다. 뒤 알드 역시 조선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으며 레지스 신부를 비롯한 프랑스 예수교 신부들이 프랑스 예수교 본부로 보낸 수 많은 보고서들과 편지들을 자료로 삼아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은 영어로 번역됐기에,[17] 영어권 독자들에게 중국에 대해서는 물론 코레아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졌다.

그러면 레지스 신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던가? 그는 우선 조선의 지리에 대해 설명했다. 조선과 중국 사이에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으며 이 두 강은 모두 중국사람들은 장백산(長白山)이라고 부르고 만주사람들은 창알랭(Chanalin)이라고 부르는 높은 산에서 발원한다고 설명한 그는 이 산의 그 이름은 "늘 하얀 산"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조선의 가옥에 대해 "조선인들의 집은 단층이며 상당히 허술하게 지어져 있다. 〔…〕 시골에서는 흙으로 집을 짓고 도시에서는 보통 벽돌로 집을 짓는다"고 설명하고나서, 조선의 의복에 대해 "조선인들은 〔…〕 중국복식의 옷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의 언어는 "중국어나 타타르어와 다르다"고 말하면서도 "조선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중국문자다"고 지적한 데 이어, "조선의 정부형태는 중국의 그것에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의 갖가지 산물들을 소개하면서 인삼과 담비를 지적한 뒤 조선의 종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선의 종이는 중국의 종이보다 비싸게 팔린다고 덧붙였다 (Brookes 1736, 56).

뒤 알드 신부의 『조선전』. 레지스의 설명들은 뒤 알드의 책에서 반복됨으로써 뒤 알드의 책은 사실상 레지스의 저술을 편집한 것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뒤 알드의 설명들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뒤 알드는, 단군조선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은 채, 조선이 중국인 기자에

16) Père Jean-Baptiste du Hald. 1735.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la Tartarie Chinoise*. A La Haye: Chez Henri Scheurleer. 이 책은 다음에 소개되어 있다. James Huntley Grayson. 1989. *Korea: A Religious History*, 3-4. Oxford: Clarendon Press. 이 책 가운데 조선에 관한 부분이 방역됐다. 뒤 알드 저 · 신복룡 역주. 1999. 『조선전』. 서울: 집문당. 레지스는 어떤 방역본들에서는 레지로 표기됐다.

17) Translated by Richard Brookes. 1736.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Containing a Geographical, Historical, Chronological, Political and Physical Description of the Empire of China, Chinese-Tartary, Corea, and Tibet, Including an Exact and Particular Account of Their Customs, Manners, Ceremonies, Religion, Arts and Sciences*. London: J. Watts.

의해 세워졌다는 이른바 기자조선설을 제시함과 아울러 기자가 이른바 팔조금법(八條禁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썼다. "이 금법들과 간통은 조선인들 사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죄목들이어서 사립문을 닫는 경우가 없었다"고 쓴 그는 "그것은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물론 조선에 대한 칭찬으로, "조선의 백성들은 대체로 합리적이며 쾌활하며 유순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신복룡 역주 1999, 61)"는 지적과 더불어 조선의 대외적 이미지를 서방세계에 좋게 전달했을 것이다.

뒤 알드는, 레지스와 마찬가지로, 조선을 중국의 "속방(屬邦)"으로 파악한 뒤, 조선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했던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예컨대, 조선 숙종(肅宗)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황제가 조선의 국왕 서임(敍任)을 허가했다고 썼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조선이 여러 많은 제도들에서 중국의 것들을 전습받았거나 모방했다고 보았다. 한 보기로, 그는 "중국인들은 〔조선사람들의〕 운송수단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썼다(신복룡 역주 1999, 62). 그는 조선사람들이 남방계와 북방계의 혼혈이라고 파악하면서 북방계가 더 건장하고 호전적이며 강용(强勇)하다고 지적했다.

뒤 알드는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면서, 조선의 국왕 선조(宣祖)가 의주로 피신하면서 명나라 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들어오고 일본과의 정전 및 평화 교섭을 맡은 심유경이 평양에 도착한 직후의 시점에서 드러난 일본군 내부의 동향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특별한 존경심으로 히데요시를 섬기고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지배자인 히데요시 앞에 무릎을 꿇고 일본군의 진격을 중지하고 더 오래 머무를 것 없이 즉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동강은 일본군이 정복해야 할 영토의 경계이며 평양의 동쪽 지역 전체는 조선에 양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명나라 원군의〕 감찰관인 송응창(宋應昌)은 "영구적인 지배권을 회복하느냐의 여부가 우리들의 용맹에 달려 있는 곳이 바로 저 곳이다"라고 외쳤다(신복룡 역주 1999, 51-52).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의 그 자체의 내용이 이 책의 기술만으로는 확실하지 않다. 예컨대, "일본군이 정복해야 할 영토의 경계"가 대동강 하나인 것인지 아니면 대동강의 연장선을 포함하는 어떤 일정한 선인지 또 "조선에 양도해야 할 〔…〕 평

양의 동쪽 지역 전체"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또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의에 대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알 수 없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애매한 내용이지만, 이 대목은 그때 일본이 갖고 있던 조선분할안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뒤 알드는 조선은 물산이 풍부한 나라임을 강조했다. 조선에는 금과 해산물이 풍부하며 우수한 모피와 종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약이 발달되어 도자기가 아름답다는 사실, 인삼이라는 신령스러운 약재가 생산된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특히 장례의 경우 많은 부장품들을 함께 묻는다고 적시했다. 신복룡 교수는 이러한 기록이 "서구의 모험가들에게 무한한 약탈심을 유혹했음에 틀림없〔으며 …〕〔조선의〕 왕릉은 약탈의 일순위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평가했다(신복룡 2002, 33). 이러한 내용의 레지스의 글과 뒤 알드의 글은 1747년에 출판된 영국인 토머스 애스틀리의 『항해들과 여행들(*Voyages and Travels*)』 제4권에 포함되면서 서양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18]

프레보 신부의 『여행의 역사』. 프랑스 신부들의 조선에 관한 저술은 계속됐다. 아베 프레보(l' Abbé Prévos)는 1748년에 『여행의 역사』를 출판했다. 이 책은 15세기 이후 유럽에서 출판된 모든 기행문들을 수록하면서,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들, 예컨대 시베리아와 캄차카 및 그린란드 등을 포함시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미 1731년에 『마농 레스코(*Manon Lescault*)』라는 소설을 출판함으로써 문명을 떨쳤던 이 승정원장(僧正院長)은 『여행의 역사』로써 더 큰 인기를 모았다(불레스텍스 2001, 57-58).

프레보는 이 책의 제6권과 제7권에서 조선을 소개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쓴 서문에 이어 레지스의 『코레의 지리와 역사에 관한 관찰』을 자기나름대로 정리해 설명한 다음 하멜의 『표류기』를 소개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글 가운데는 레지스(그리고 자연히 뒤 알드)의 글과 내용이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다음과 같은 부분이 한 보기이다.

---

18) 이 책은 뒷날 다음으로 복간됐다. *New General Collection of Voyages and Travels: Comprehending Everything Remarkable in Its Kind in Europe, Asia, Africa and America*, Collected by Thomas Astley (4 Vols.: New York: Frank Cass and Company Limited, 1968). 이 책의 제4권의 Book II, Chapter 1이 "Geographical Observations, and History of Korea"이다.

〔조선〕인들은 대체로 온순한 천성이다. 이들은 학문에 대해 관심이 깊고 춤과 무용도 즐긴다. 북쪽지방은 〔조선〕에서 가장 강한 남자들과 최고의 병사들을 길러낸다. 기체(Ki-tse: 기자: 필자 주)는 여기에 너무도 훌륭한 법을 세워서 이곳에서는 간통이나 도둑질이 무엇인지 모른다. 여기서는 밤에도 대문을 닫지 않는다. 통치조직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오랜 순수성이 다소 퇴색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아직도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방탕한 여자들이 많고 젊은 남녀들은 지나치게 자유분방하다(불레스텍스 2001, 59).

레지스의 서술이고 동시에 뒤 알드의 서술이기도 하면서 프레보의 서술에서 되풀이되는 조선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의 보기는 다음이다:

〔조선〕에서의 형벌은 별로 가혹하지 않다.(하멜은 정반대로 〔조선〕의 형벌이 매우 엄격하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중죄로 여겨지는 죄들도 여기서는 가까운 섬으로 추방하는 정도로 벌한다. 그러나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험한 말을 하는 아들은 머리를 베어버린다. 가벼운 잘못의 경우, 죄인은 매를 맞는다. 벌을 받게 될 사람에게 주머니를 씌워 발까지 내려오게 하는데, 수치심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벌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불레스텍스 2001, 58-59).

프레보의 조선에 대한 묘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불레스텍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프레보의 글은 〔…〕 두 가지 주제가 하나로 융해되어, 최초의 〔조선〕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착한 야만인(온순한 성격, 북쪽의 강한 사람들, 오랜 순수성,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젊은이들, 방탕한 여자들)과 동양의 현자 (학문에 대한 관심, 다른 나라에 대한 모범)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그것이다(불레스텍스 2001, 60)."

레지스와 뒤 알드 및 프레보의 조선에 대한 서술들은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계몽주의 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볼테르(Voltaire)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볼테르는 1755년에 출판한 『중국의 고아(孤兒)』와 1756년에 출판한 『세계풍속사론』에서 조선을 중국의 한 속국으로 취급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조선은 "매우 오래된 나라이면서 몽골보다도 더 먼 나라"라는 인상을 갖게 만들었다. 다시 불레스텍스 교수의 논평을 빌린다면, 볼테르는 "어둡고, 뭔가에 싸여 있는 곳의 이미지, 그래서 훗날 수많은 침투와 탐험을 불러일으킬 곳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 것이다(불레스텍스 2001, 70).

달레 신부의 『꼬레의 교회의 역사』. 프랑스 신부들의 조선에 관한 부분적인 설명들은 그때로부터 약 1세기가 지난 19세기 후반에 같은 프랑스 신부의 조선에 관한 전문적이면서 본격적인 저서 속으로 통합됐다. 파리의 외방전교회에 소속된 달레(Père Claude Charles Dallet) 신부가 1874년에 출판한 『꼬레의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19] 달레 신부는 1829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 1852년에 사제가 됐으며 인도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그는 외방전교회의 역사를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자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했으나 조선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그는 파리로 돌아와 주로 중국에서 시무하는 선교사들이 보낸 자료들을 근거로 2권으로 구성된 이 책을 펴낸 것이다. 그는 그 이후 일본과 중국을 순방하고 베트남을 여행하던 1878년에 거기서 49세를 일기로 병사했다.

달레는 이 책을 통해 주로 천주교가 조선에 수용되고 또 조선에서 박해받은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조선인 최초의 입교자(入敎者) 이승훈(李承薰), 1800년에 정조가 승하한 뒤 등극한 어린 순조(純祖)를 위해 수렴청정(垂簾聽政)의 역할을 수행한 대왕대비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의 주도 아래 전개된 1801년의 이른바 신유박해(辛酉迫害), 그 과정에서 발생한 주문모(周文模) 신부의 순교와 황사영(黃嗣永) 백서사건(帛書事件)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달레는 이 본론에 앞선 서론에서 15개 장에 걸쳐 조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지리 · 역사 · 정부조직 · 사법제도 · 사회신분 · 가족제도 · 여성의 지위 · 종교 · 풍습 · 산업과 국제관계 등등이 그것이다. 이 서론에서 중요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역사와 지리에 관련해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

19) Père Claude Charles Dallet. 1874.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Paris: Victor Palmé.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재간됐다. Reprinted ed. 1975. Seoul: Kyung-In Publishing Company, 이 책의 첫 방역본은 이능식(李能植) · 윤지선(尹志善) 공역의, 1947 『조선교회사』(서울: 대성출판사〔大成出版社〕)이다. 이 방역본은 달레의 책의 서론만을 번역한 것이다. 이 방역본에 이어 정기수(丁奇洙)의 『조선교회사서론』(서울: 탐구당)이 1966년에 탐구신서 101로 출판됐다. 이 방역본은 1975년에 개역됐다. 마지막으로, 안응렬(安應烈) · 최석우(崔奭祐) 역주, 『한국천주교회사』(전 3권: 서울: 분도출판사), 상권(1979), 중권(1980), 하권(1980)이 있다. 이 책의 개판본이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1987년에 출판됐다. 필자(김학준)는 이 1987년판의 상권에 의존했다.

1. 꼬레(Corée)라는 이름은 중국말 까올리(Kao-li)에서 온 것으로, 조선사람들은 고려(Kô-rie) 일본사람들은 고라이(Kô-rai)라고 발음한다. 이것은 지난 왕조 때의 나라이름이었다. 서기 1392년에 시작된 지금 왕조가 이 이름을 바꾸어 지금 공식국명인 조선이라는 명칭을 채택했다. "아침의 고요"라는 뜻인 조선이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이 명칭이 중국사람들에게서 왔음을 알 수 있으니, 과연 중국인들로서는 조선이 아침의 나라이다.
2. 조선의 언어는 중국어나 일본어와 다르다. 조선어는 인도 남부의 드라비다(Dravida)어에 비슷하다.
3. 산에는 금 은 동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 듯하다. 많은 곳에, 그중에서도 북쪽지방에서는 땅을 조금만 파도 금이 나오며, 어떤 개울에는 모래 속에 사금이 들어 있다고 한다.
4. 어떤 병은 조선에서 참으로 재앙이 되는데, 그 가운데도 천연두가 그렇다. 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아마 백명도 안 될 것이다. […] 특히 어른들이 걸리는 병 가운데에서 일종의 페스트와 티푸스를 들어야 하겠는데, 땀을 흘리게 하지 못하면 3~4일만에 틀림없이 죽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환자가 숨이 막혀 즉사하는 급체와 매우 흔한 간질, 그리고 콜레라 등이 있다.
5. 현재 조선의 인구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정부의 공식통계는 30년 전에 170만 이상의 가구에 인구가 약 750만 명을 헤아리고 있었다. 그러나 명단이 하도 소홀히 꾸며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계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한 가구에 평균 거의 여섯명으로 쳐서 총인구수를 천만명으로 잡으면 아마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몇몇 지리학자들은 조선의 인구를 1,500만명으로 추산하지만 분명히 과장된 이 추측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되는 부분은 조선의 인구에 관해서이다. 달레가 말한 "30년 전의 정부의 공식통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헌종실록(憲宗實錄)』을 말한 것일 것이다. 이 책의 권7 20장(張) 헌종 6년 12월 병술조(丙戌條)에 따르면, 순조와 철종(哲宗) 사이의 국왕인 헌종 6년에 해당되는 1840년 현재 조선의 호구수는 1,560,774호이며 인구수는 남 3,308,012명 여 3,309,985명 계 6,617,997명이다(안응렬 · 최석우 1979, 35. 각주 31). 아마도 달레는 이것에 근거해 조선의 인구에 대해 썼을 것이다.

달레는 조선의 정부조직 및 왕실에 관해 다양하게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달레는 "동양의 다른 모든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정부형태는 절대군주제

이다. 왕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사람과 물건과 기구에 대하여 무제한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썼다. 그러나 이 진술들은 정확하지 않다. 조선의 국왕은 절대군주가 아니었으며,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 등 이른바 삼사(三司)에 의해 상당한 견제를 받았다. 달레는 조선의 국왕을 절대군주라고 정의하면서도, 최근에 와서 그의 권한은 많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세도집안의 귀족들이 국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달레는 조선의 왕궁을 "파리의 좀 넉넉히 사는 연금생활자라면 살려고 하지 않을 초라한 집들"이라고 평가했다. 달레는 이어 조선조정의 부정부패에 대해 매우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위관리들과 귀족들이 위로는 국왕을 피폐하게 만들고 아래로는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배계급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표현은, 우리가 제2회에서 보게 되듯, 조선이 개항한 이후에 조선을 관찰한 서양인들의 기록들에 자주 등장한다. 달레는 이어, 다음과 같이 썼다:

> 관직은 공공연하게 매매되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체면을 차릴 생각도 하지 않고 들인 비용을 빼내려고 한다. 관찰사로부터 미관말직에 이르기까지 벼슬아치는 누구나 조세와 소송과 그밖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재주껏 돈을 만든다. 암행어사들까지도 더할 수 없이 뻔뻔스럽게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먹는다.
>
> [···] 법정세금은 실제에 있어서는 탐욕스러운 모든 계급의 수령과 관리들이 백성에게서 빼앗아가는 금액의 작은 부분을 나타내는 데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세금징수의 기준이 되는 호구조사대장은 도무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 수령의 부하들이 공식명부를 꾸미기 위하여 마을에 오면 거기에 적히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그들에게 얼마만한 돈을 치러야 하는지를 뻔뻔스럽게도 공공연하게 결정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 [···] 공공창고의 저장은 장부상으로만 존재한다. [···] 지방의 병기고에는 쓸만한 피복도 탄약도 병기도 없다. 모든 군청관리들이 팔아먹고 그 대신에 누더기 몇 조각과 쓸데없는 파쇠 나부랑이를 갖다 놓았다. 어쩌다가 정직한 수령이 이런 횡령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려들면, 모든 관리들이 그에 대항하여 한데 뭉쳐 그의 행동이 무력하게 되므로, 그는 할 수 없이 눈을 감고 그들이 하는대로 버려두거나 자기 임지를 떠나야만 한다(안응렬 · 최석우 1979, 74-75).

달레는 지방관청의 아전(衙前)과 사령(使令)의 횡포와 부패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다. 첫째, 아전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관찰했다:

> 그들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평소에 그들을 하인 취급을 하면서도 그들이 하는대로 질질 끌려가는 수령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 온갖 농간, 음모, 계략에 능숙하므로 그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수령에 대하여 자신들을 지키는 데에 놀랍도록 정통해 있다. […] 그들의 근본원칙의 하나는 언제나 수령을 속여야 하며, 그에게 할 수 있는대로 그 지방의 사정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 있어서는 사활의 문제이다. […] 한편으로는 백성을 희생시켜가며 수령의 끝없는 탐욕을 만족시켜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과 가족들의 생활비로 많은 돈을 쓰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사기와 주구(誅求)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안응렬 · 최석우 1979, 105-106).

둘째, 사령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관찰했다:

> 가장 약고 가장 거만하고 가장 무서운 자들은 각 도청의 형사법정의 사령들이다. 일정한 보수가 없으므로 그들은 횡령으로만 살며, 그들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백성들에게서 강탈한다. […]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자유로이 수령 앞에 나아가 하소연을 할 수가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법정의 입구가 아전들이나 사령들에 의하여 단단히 지켜져 있으므로 좋든 싫든 간에 그들의 손을 거쳐야만 하며, 또 소장(訴狀)을 직접 수령의 손에 전하는 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부하들의 절대적인 세력을 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니 아무런 이득도 없을 것이다(안응렬 · 최석우 1979, 108-109).

달레는 과거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지난날에는 인재등용의 좋은 수단이었던 "이 제도가 오늘날에는 아주 타락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썼다. 과거시험의 합격은 "가장 돈 많은 사람들과 가장 강력한 후원자들이 밀어주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안응렬 · 최석우 1979, 122). 그는 문객(門客)의 폐해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다. 생산적인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오직 대관들의 사랑방을 출입하며 대관의 심부름을 해주며 대관에게 아첨을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해하는 등의 농간을 부려 관직을 얻는 사람들을 문객이라고 부른 그는 그들을 "탐욕스런 거지떼"라고 비웃었다(안응렬 · 최석우 1979, 169). 그는 조선인의 성격을 자세히 소개하는 가운데, "조선사람들의 또 하나의 큰 결점은 폭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식(過食)에는 자연히 과음(過飮)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음주벽은 이 나라에서 매우 영예로운 일로 되어 있으며, 만약에 누가 정신을 잃도록 술을 마셔도 그를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썼다(안응렬 · 최석우 1979, 235). 그는 조선사람들의 "초라한 오막살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다.

조선의 산업과 국제관계에 관한 그의 관찰들은 서론의 마지막 장(章)인 제15장에 기술되어 있다. 그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에서의 과학 연구는 "보잘 것 없다." 그러나 『동의보감(東醫寶鑑)』은 중국에서도 존중되고 있다. "다른 어떤 조선 책도 이런 명예를 누린 적이 없었다."
2. "조선사람들은 공업지식에 있어서도 별로 나을 것이 없다. 그들의 나라에서는 유익한 기술은 몇 세기 전부터 전혀 아무런 진보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사람들이 중국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공업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제지공업이다."
3. 조선에서는 국내상업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다. "상업발전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의 하나는 화폐제도의 불비이다. […] 상거래에 또 하나의 장애가 되는 것은 교통로가 한심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상의 관찰들은 하멜의 관찰들과 흐름을 같이 한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 하멜은 조선에서 과학과 공업 및 상업은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달레는 이어 "조선과 이웃 나라와의 무역관계는 거의 없다. 이웃의 두 강국인 중국과 일본에 대하여 자기의 독립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하여, 이 나라는 완전한 격리 속에 자신을 두었다"고 썼는데, 이 진술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다. 이 시대를 연구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조선은 17세기 중엽 이후 대청무역(對淸貿易)과 대일무역(對日貿易)을 활성화 시키고 있었다(안응렬 · 최석우 1979, 268, 각주 15).

달레는 이 제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원군이 섭정을 하던 때인 1871년과 1872년에 조선이 겪었던 무서운 기근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 하도 곤궁한 나머지 서해안 주민들은 중국 밀수업자들에게 그들의 어린 딸들을 한 사람 앞에 쌀 한 말을 받고 팔았다. 북쪽 국경의 숲을 지나서 요동으로 온 몇몇 조선사람은 선교사들에게 처참한 국내상태를 묘사하면서, 길마다 송장이 널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정부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식량을 사들이는 것을 허

락하기 보다는 차라리 백성의 반수(半數)를 죽게 내버려둘 것이다(안응렬 · 최석우 1979, 274).

조선정부는 왜 이러한 길을 택하고 있는가? 달레에 따르면, 조선정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쇄국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어떠한 이해나 인정의 고려도 그로 하여금 쇄국을 포기하게는 하지 못할 것이다."

달레의 이 관찰은 오늘날의 북한상황을 연상시킨다.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걸으면 백성을 살릴 수 있겠으나 정권의 "안전"은 위협을 받는다는 계산에서 폐쇄적인 길을 고집하는 북한지도부를 연상시킨다는 뜻이다. 달레는 "힘만이" 조선정부의 선택의 "변경"을 강요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것 역시 북한정권의 노선변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는 국내외 일각에서의 주장을 연상시킨다.

VI. 유럽열강의 조선으로의 항해의 개시: 프랑스함대와 영국함대 및 러시아함대, 그리고 독일상선의 탐사 및 진출시도

1. 라 페루즈의 조선탐사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 조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방문했거나 저술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예수회 신부들이었다. 그들은 포교의 목적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1700년대의 종반에 들어서면서 조선에 대해 새로운 의도를 갖고 방문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탐사의 목적에서, 또는 원정의 목적에서, 함대나 선박을 이끌고 조선을 찾았던 사람들이다. 이로써 조선에 대한 서양인들의 탐험은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그 시작은 프랑스해군의 조선탐사였다. 1776년에 시작되어 1782년에 사실상 끝난 미국의 영국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과 관련해 영국과 프랑스는 1783년 9월에 파리의 베르사유궁전에서 조약을 맺었다.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는 이 조약을 계기로 해군에서 20년의 경험을 쌓은 라 페루즈(Jean-François de Galaup de la Pérouse)

에게 아시아와 아메리카 해안의 남부를 탐험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루이 16세의 표면적인 목적은 미지의 해역에 대한 학술적 탐사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들어 있었다. "모피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던 영국을 제압하기 위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것, 당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을 탐사해서 새로운 식민지 영토 획득의 가능성을 타진할 것, 인도와 캐나다를 영국에 빼앗겼지만 해양국가로서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싶은 야망" 등이 바로 숨은 의도였다(박천홍 2008, 155-156).

그리하여 탐험대의 대장 라 페루즈는 1785년 8월에 부솔(Boussole)호와 아스트롤라브(Astrolabe)호라는 이름의 범선들을 이끌고 우선 아시아 탐험의 길에 올랐다. 승무원의 수는 부솔호가 총 108명 아스트롤라브호가 총 911명으로, 모두 1,019명이었다. 탐험대는 1788년 1월에 호주의 시드니에 도착하는 것으로써 이 탐험을 끝냈다. 그사이 라 페루즈가 본국정부에 보낸 보고문들이 1797년에 파리에서 『라 페루즈의 세계여행』이라는 전4권의 책으로 출판됐다. 이 책은 1799년에 영국에서 『라 페루즈의 항해(*The Voyage of de la Pérouse*)』라는 이름으로 역간됐다.[20]

1785년 8월 1일에 프랑스의 해군기지 브레스트(Brest)항을 출발한 이 탐험대는 1787년 5월 21일에 제주도 근처를 지나면서 이 섬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탐험대는 제주도의 집들이 계단식으로 늘어서 있었고 논밭이 질서정연하게 구획되어 있었다고 기술하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의 섬은 찾기 힘들 것이다"라는 구절로써 찬탄을 표시했다. 그러나 탐험대는 제주도에 상륙하지 않았다. 대장 라 페루즈는 하멜의 『표류기』를 떠올리면서 "난파된 불행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고 매질을 가했던" 이 섬에 상륙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탐험대는 곧 5월 23일에 "동해" 또는 "조선해"로 불리던 해협에 들어섰다. 이 해협을 유럽의 함대가 지나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함대에서 천문관측사의 역할을 수행하던 당시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천문학교수 다즐레(Lepaute Dagelet)가 곧 서양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울릉도를 발견했다. 라 페루즈는 그의 이름을 따서 울릉도를 다즐레 섬(Isle Dagelet)라고 명명했다. 그는 이 섬에 대해서도 "아름답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일기가 나빠 상륙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사람들과

20) 박천홍 2008, 156-165쪽; 박대헌(朴大憲). 1996. 『서양인이 본 조선: 조선관계 서양서지(西洋書誌)』(전 2권) 제1권. 서울: 호산방〔壺山房〕, 62쪽.

접촉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자연히 조선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그는 마찬가지 이유에서 독도를 발견하지도 못했다(불레스텍스 2001, 77-84). 그러나 그때로부터 62년이 지난 1849년에 같은 국적의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호는 서양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라고 명명한다.

탐험대는 북상을 계속해 6월 11일에는 조선과 만주를 나누는 어떤 해안지점에 도착했다. 눈이 덮여 있는 거기에는 논밭도 가옥도 없이 그저 황량했다. 거기서 좀 더 북상한 탐험대는 "우리의 공포를 불러일으킨 〔…〕 놀라운 모습의 안개"를 보았고, 사슴들과 곰들을 보았다. 탐험대의 자료들을 면밀히 살핀 불레스텍스 교수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제시했다: "라 페루즈에게는 두 개의 〔조선〕이 있다. 잘 관리된 논밭이 있는 제주도의 〔조선〕과 불모지와 야만성이 존재하는 북쪽의 〔조선〕이 그것이다. 〔…〕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은 동양의 현자와 착한 미개인의 나라만이 아닌 '아름다운 풍경의 나라'로 묘사된다(불레스텍스 2001, 84)."

2. 브로턴의 조선탐사

라 페루즈에 뒤이어 영국해군대령 브로턴(William Robert Broughton)은 프로비던스(Providence)호를 이끌고 1797년부터 1798년까지 북미의 태평양 연안과 동아시아를 탐사했다. 그는 항해를 마친 뒤 자신의 항해기 『북태평양으로의 발견의 항해(*A Voyage of Discovery to the North Pacific Ocean*)』를 1804년에 런던에서 출간했다.[21] 이 책에 따르면, 이 군함은 1797년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함경도의 청진으로부터 경상도의 부산에 이르는 동해안을 탐사했다. 뒷날 이 군함이 탐사한 함경도의 영흥만(永興灣)은 함장을 기념해 브로턴만(Broughton Bay)이라고 명명된다(박천홍 2008, 63).

대원들은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부산항에 정박해 식수와 땔나무를 얻고자했으며 이 지방의 조선관리들은 그 요구에 응했다. 이것은 그들이 "조난자의 취급을

21) 출판사는 T. Cadell and W. Davies in the Strand였다. 이 책은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0으로 서울의 경인문화사에서 2000년에 영인본으로 출판됐다. 조선에 대한 기록들은 이 책의 제7장과 제8장에 있다.

조선정부로부터 받았던 것"을 의미했다.[22] 이때의 그들의 모습을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정조실록』은 정조 21년에 해당되는 1797년 9월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 이것은 조선사람이 영국사람을 보고 적은 최초의 기록이다:

> 이국(異國)의 배 한 척이 동래 용당포(龍塘浦) 앞바다에 표류해 이르렀습니다. 배 안의 50인이 모두 머리를 땋아 늘였는데, 어떤 사람은 뒤로 드리우고 머리에 백전립(白氈笠)을 썼으며, […] 그 사람들은 모두 코가 높고 눈이 파랗습니다. 역관을 통해 그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고 표류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물었더니, 한어(漢語) 청어(淸語) 왜어(倭語) 몽고어(蒙古語)를 모두 알지 못하였습니다. 붓을 주었더니 구름과 산과 같은 그림을 그려 알 수 없었습니다(오인동 2008, 177-178).

정조는 곧 대신들과 가진 회의에서 이 사건을 화제에 올렸다. 정조가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아란타(阿蘭陀)사람"인 것 같은데 "아란타는 어느 지방 오랑캐"이냐고 묻자, 한 고위관리는 "아란타는 하란(賀蘭)으로 대만이 바로 그곳"이라고 설명했다. 질문이나 답변이나 모두 사실에 어긋났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아란타사람"이 아니고 영국사람들이었고, 아란타는 대만이 아니라 네덜란드였다. 확실히 그들의 국제지식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박천홍 2008, 54-55).

정박한 군함 주변에는 곧 조선의 배들이 몰려들었다. 그 배들에는 많은 조선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대원들은 조선사람들의 머리에서 상투를 발견하고 특이하게 느꼈다. 대원들은 조선사람들의 용모나 피부가 중국사람들의 그것들을 닮았다고 느꼈다. 브로턴을 비롯해 대원 일행이 상륙하자 마을사람들이 따라다녔다. 다른 마을로 들어가려 하자 마을사람들이 가로막으면서 더 이상 걸어가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Broughton 1795~1798, 331). 그래서 그들은 배로 돌아왔다. 곧 이 지방의 고관들이 함장의 배로 찾아왔다. 양자 사이에 대화가 시도됐으나 언어의 불통으로 조선관리들은 배를 떠났다. 반면에 브로턴 일행에게는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처럼 외국인을 꺼리면서 출국을 요청하는 조선사람들의 행태는 브로턴의 짧은 기록에 무려 다섯 차례 등장했다. 비록 통행을 금지당했지만, 브로턴은 조선사람들의 주거환경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의 집들은 작고 모두 단층이

22) 한상복(韓相復). 1988. 『해양학에서 본 한국학』. 서울: 해조사[海潮社], 318쪽.

며 짚으로 지붕을 이었다"고 썼다(Broughton, 343).

대원들은 곧 부산의 해도를 작성했다. 여기서 그들은 부산을 제산항(Tshesan Harbor)으로 표기했으며, 남해안의 한 부분을 조상(Thosang)으로 표기했다. 그들은 조선의 수군으로부터 조선국(Chosan-go)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조상으로 표기했던 것이다. 그들은 영도(影島)를 섬이 아니라 육지로 잘못 그렸다(한상복 1988, 319).

브로턴 일행은 조선반도의 남해안으로 탐사항해를 계속해, 어느 한 섬에 잠시 정박했다. 브로턴은 이 섬의 이름을 기록해놓지 않았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섬을 오늘날의 전라남도 여수시에 속하는 섬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함은 거기서 항해를 계속해 10월 26일에 한 섬에 닿았다. 브로턴은 이 섬이 켈파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29일까지 이 섬의 서북해안을 조사했다. 그러나 그는 이 섬에 상륙하지 않았다.

3. 맥스웰과 홀의 서해안 및 남해안 탐사

조선에 대한 영국해군의 탐사는 계속됐다. 정조 다음의 임금인 순조 15년에 해당되는 1816년 2월에 영국정부는 중국과의 "불합리한" 무역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사 애머스트 경(Sir Jeffrey William Pitt Amherst)을 중국에 파견했다. 애머스트 경은 맥스웰(Murray Maxwell) 대령이 지휘하는 알세스트(Alceste)호와 홀(Basil Hall) 대령이 지휘하는 리라(Lyra)호의 호송을 받으며 8월에 천진(天津) 북쪽 연하구(蓮河口)에 도착했다. 애머스트 경이 북경을 방문하는 기간을 이용해, 맥스웰과 홀은 우선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조선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탐사하고 이어 류큐 해역을 탐사했다. 홀, 그리고 그를 동행한 군의관 매클러드(John McLeod)는 뒷날 각각 자신의 탐사기를 출판했다.[23]

---

23) Basil Hall. 1818.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eochoo Island*. London: John Murray. 이 책은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1로 서울의 경인문화사에서 2000년에 영인본으로 출판됐다. 이 책 가운데 조선에 관한 부분은 다음으로 역간됐다. 신복룡 · 정성자 역주. 1999. 『조선서해탐사기』. 서울: 집문당. John McLeod. 1819. *Voyage of His Majesty's Ship Alceste to China, Corea and the Island of Lewchew, with an Account of Her Shipwreck*. London: John Murray. 이 책의 내용은 다음에 부분적으로

그러면 그들은 조선에서 무엇을 보았던가? 홀의 일기를 따라가본다. 9월 1일 아침 9시에 그들은 서해안에 위치한 3개의 높은 섬들 근방에 닿았다. "그 섬들은 꼭대기까지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낮은 지대는 경작되어 있어서 […]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했었던 중국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에서 지난번에 방문했던 곳처럼 편평한 대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Hall 1818, 2)."

이 섬들은 어떤 섬들이었을까? 홀은 9월 1일자 일기에서 "맥스웰 대령은 이 섬들을 에딘버러 왕립학사원 원장의 이름을 빌려 제임스 홀 군도(Sir James Hall Group)라고 명명했다. 그 섬들은 동경 124° 46′ 북위 37° 50′에 위치하고 있다"고 썼다. 제임스 홀 경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지리학자 겸 화학자로 케임브리지대학교의 크라이스트칼리지 교수였으며, 이 일기를 쓴 홀의 아버지다. 아들은 고향 스코틀랜드의 명문인 에딘버러대학교를 졸업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명된 이 군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날의 서해 5도이다.

다시 홀의 일기로 돌아가기로 한다. "우리는 그 섬들의 남쪽으로 더 나아가 남쪽 섬으로부터 2~3마일 떨어져 있는 멋진 한 만(灣)에 닻을 내렸다. 우리가 닻을 내린 직후에 5~6명의 원주민들을 태운 보트 하나가 해안으로부터 나와 범선의 50야드 이내쯤에서 멈췄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우리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낸 신호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호기심과 불신의 표정을 보이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우리 배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아무런 놀라움도 보이지 않았고 또 우리가 해변을 향해 배를 저어 고을 근방에서 상륙할 때까지 우리를 따라왔다(Hall 1818, 2)." 서양인들의 조선관찰기록들을 집대성한 서지학자 박대헌은 이 섬을 오늘날 인천광역시 옹진군(甕津郡) 백령면(白翎面)에 속하는 백령도(白翎島)로 보았다(박대헌 1996, 제1권, 64).

맥스웰과 홀 일행은 그들을 보려고 몰려온 원주민들을 만났다. 홀의 관찰에 따르면, "[원주민들의] 피부는 짙은 구릿빛이었고 그들의 외모는 험했고 약간 야만스러웠다(their colour was a deep copper, and their appearance forbidding, and somewhat savage.)" 원주민들은 이 낯선 서양인들에 대해 불안을 나타냈다. 이 점과 관련해, 홀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소개되어 있다. 박천홍(2008), 173-211쪽.

> 그들의 주된 갈망은 가능한 한 빨리 우리를 몰아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뜻을 그들은 너무나 분명히 나타내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없었다. 우리가 마을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들은 처음에는 다른 길로 우리가 가도록 가르쳐주었고, 우리가 계속 가려고 고집하자 팔을 잡고 밀쳐내는 등 우리를 거칠게 대했다. 그들을 달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대접을 참았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내심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몇 차례 노력했으나 헛된 일로 끝났다. 우리는 그들의 태도가 매우 유쾌하지 않았기에 그곳을 떠났다(Hall 1818, 4).

맥스웰과 홀 일행은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 마을은 진흙을 바른 갈대로 거칠게 지은 40채의 집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붕의 모양은 모두 같고 갈대와 짚으로 시원찮게 지붕을 이어 새끼로 묶어내렸다. 이 오두막들은 길가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깔끔하지도 깨끗하지도 않게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다. 오두막 사이의 공간은 쓰레기더미와 진창투성이의 물구덩이로 채워져 있었다(Hall 1818, 5)." 일행은 한 원주민 여성을 보았다.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은 이 여성의 발이 중국에서처럼 전족되어 있지 않고 자연 그대로라고 말했다(Hall 1818).

맥스웰과 홀 일행은 9월 1일 저녁 8시에 이 섬을 떠나 9월 3일 아침에 북위 36° 30′ 동경 126° 가까이에 이르렀다. 신복룡 교수는 위도상으로 볼 때, 이 지점은 충청도 안면도(安眠島)와 격렬비도(格列飛島)의 중간지점이라고 단정했다. 일행의 항해는 계속됐다. 2시쯤 다도해(多島海)의 어느 섬 — 신복룡 교수의 고증으로는 오늘날의 전라남도 신안군(新安郡) 지도면(智島面)의 지도(智島) — 에 닻을 내렸는데, 원주민들은 "소리를 지르는 등의 온갖 몸짓을 다해 우리가 그 섬을 빨리 떠나는 것이 좋다는 표시를 멈추지 않았다."

일행은 그 섬을 떠나 한 작은 만에서 상륙했다. 원주민들은 "부채로 그들의 목을 가로지르고 때로는 우리의 목을 가로지르기도 하여 우리가 계속 나아가면 목이 달아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그래도 일행은 계속 걸었다. 원주민들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의 의복의 천과 모양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냈다." 원주민들은 "시계를 보자마자 다른 모든 것은 무시하고 그것을 자세히 보게 해 달라고 졸랐다. 그들은 시계를 처음 본 것이 분명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이 초침을 보자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심을 곧 도장과 열쇠로 옮겼다. "그들은 그들의 손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그

들이 도장에 익숙해 있음을 보여주었다(Hall 1818, 11-12)."

맥스웰과 홀 일행은 9월 4일 오후 3시쯤 어느 만을 발견하고 거기에 알세스트호와 리라호를 정박시켰다. 이 만을 홀은 자신의 이름을 따 배질만(Basil's Bay)라고 명명했다. 이 만은 오늘날 장항만(長項灣)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일대에 대해 설명한다면, 오늘날 충청남도 서천군(舒川郡) 비인면(庇仁面) 비인만(庇仁灣) 마량(馬梁) 포구 그리고 서천군 장항읍 일대이다.

일행이 가까운 동네쪽으로 갔을 때, 그들은 큰 배 안에서 "우산 아래 앉아 있는 멋 있는 가부장적 인물"을 보았으며, 장(長: Chief)으로 보이는 그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언어가 불통이어서 대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홀은 "장에게는 체리 브랜디 몇 병을 주고 그의 부하들에게는 럼주를 나누어줌으로써 드디어 그를 기분좋게 만들 수 있었다(Hall 1818, 18)." 이 해후에 관해 『조선왕조실록』의 『순조실록』은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충청수사(忠淸水使) 이재홍(李載弘)의 장계에 따르면, 마량진(馬梁鎭) 첨사 조대복(趙大福) 그리고 비인 현감 이승렬(李升烈)이 "영길리국(英吉利國) 수사관원(水師官員)"을 만났다(신복룡 · 정성자 역주 1999, 26-27). 홀이 말한 장이 바로 비인 현감이었다.

양측의 친교는 빠르게 이뤄져, 현감은 알세스트호를 방문했다. 맥스웰과 홀은 알세스트호에서 그를 영접했으며, 양측 사이에 수화(手話)가 교환됐다. 홀은 현감으로부터 큰 갓과 장죽 등 토산품을 선물로 받았다. 홀은 9월 5일의 일기에서 현감이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고 기록했다. 맥스웰과 홀은 곧 장항만을 떠나, 9월 8일에 고군산열도(古群山列島)의 어느 섬에 잠시 상륙했다. 그들은 마을이 "꽤 황량하다(quite deserted)"는 느낌을 받았다. 일행은 산 정상에서 다도해의 장면을 즐겼고 곧 신안해협(新安海峽)을 통과해 9월 10일 아침에 제주도의 해안에 잠시 머물렀다. 그러나 상륙하지는 않았다. 일기는 여기서 끝났으나, 홀은 부록에 「조선의 서해안 주민들에게서 전해들은 단어들」을 기록했다.

홀은 1817년 초에 한 범선의 선장으로 귀국하는 길에 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St. Helena) 섬에 들려 이곳에 유배되어 있던 황제 나폴레옹을 알현했다. 나폴레옹은 홀의 아버지가 졸업한 파리 브리엔느(Brienne) 유년사관학교의 후배였다. 이 장면을 신복룡 교수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나폴레옹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선장의 아버지에 대한 안부며 항로를 물었

다. 홀 선장은 자신이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를 탐사하고 오는 길이라며 장죽과 큰 갓을 보여주면서 조선의 풍물을 소개했다. 기이한 조선의 토산품을 바라보며 나폴레옹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인정과 풍속은 어떻더냐고 묻자 홀은 대답하기를, "이 나라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어서 이제까지의 유서 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본 적이 없이 선량한 민족"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빙긋이 웃으며, "이 세상에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보지 않은 민족도 있다더냐? 내가 다시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찾아보리라"고 말했다(신복룡 2002, 39).

이 대화에서 우리는 앞에서 살폈던 하멜의 『표류기』 가운데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된다. 조선사람들은 겁이 많고 용기가 부족하며 그러한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지적, 특히 조선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으며 전쟁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라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나폴레옹을 알현한 직후 영국으로 돌아온 홀은 그 이후에는 주로 북미와 남미에서 근무했으며, 1825년에는 스페인의 총독 헌터(John Hunter)의 딸과 결혼했다. 그는 1831년 이후 런던에 정착했으며 왕립천문학회를 비롯해 유서깊은 몇몇 왕립학회들에서 정회원으로 활동했다(신복룡 · 정성자 역주 1999, 7-8). 반면에 조대복 첨사와 이승렬 현감은 파면을 당했다(박천홍 2008, 201).

홀이 남긴 짧은 기록은 전적으로 풍물지일 뿐 조선의 국내정치적 및 국제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록 속에서도 우리는 그때의 조선 국내외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영국해군이 조선 서해의 5도를 탐사했다는 사실이다. 신복룡 교수가 이미 지적했듯, 오늘날에도 남북한 사이에 날카로운 갈등의 대상들 가운데 하나인 서해 5도는 이미 이 시점에서 영국의 깊은 관심을 받았던 것이다. 그만큼 이 곳에 대한 관심이 컸기에, 맥스웰과 홀 일행이 그린 해도는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아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신복룡 2002, 39-40, 47-48).

둘째, 조선조정은 외국인 배척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했기에, 맥스웰과 홀 일행이 만난 원주민들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몰아내려고 했으며, 그러나 인정에 끌려 결국 그들을 접대하게 된 관리들은 그들을 접대하면서도 그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예컨대, 비인 현감은 여러 차례 자신의 손을 목에 가로지르면서 "자신의 목이 잘릴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표시했다. 비슷한 일은 신안해협의 어느 섬에서도 되풀이 됐다. 원주민들은 그들이 머무르는 것을 "매우 불안해하며 참지 못했다."

셋째, 다른 한편으로, 원주민들은 그들의 상륙이 확정된 뒤에는 그들을 우호적으로 대접했다. 이 사실과 관련해, 신복룡 교수는 "우리는 서세동점기(西勢東漸期)의 한국인들이 서구인들을 기피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서구인과의 갈등은 지배계급의 오판이 빚은 실수일 뿐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는 아니었다"고 논평했다(신복룡 2002, 47).

4. 린세이와 귀츨라프의 조선 서해안 탐사

이상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맥스웰과 홀 일행이 조선의 서해안을 탐사한 때로부터 꼭 16년이 지난 1832년(순조 31년) 7월에 영국상선 로드 애머스트(Lord Amherst)호가 조선의 서해안을 탐사했을 때 다시 나타났다. 중국을 거쳐 조선해역에 나타난 이 배에는 영국동인도회사의 중국광동주재수석화물관리인 린세이(Hugh Hamilton Lindsay)와 독일인 개신교 선교사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 등 67명이 타고 있었다. 린세이는 영국 모직물의 판매시장을 개척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고, 귀츨라프는 개신교를 전파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귀츨라프는 조선을 찾아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여행기를 남겼다.[24]

린세이와 귀츨라프는 홀과 매클러드의 여행기를 참고하면서 양력으로 1832년 7월 17일에 조선 서해 5도에 접근했으며 오후 5시께 황해도 장연현(長淵縣) 몽금포(夢金浦) 장산곶(長山串) 녹도(鹿島)에 정박했다. 그러나 상륙한 그들을 만난 원

24) H. H. Lindsay. 1834. *Report of Proceedings on a Voyage to the Northern Ports of China in the Ship Lord Amherst: Extracted from Papers, Printed by Order of the House of Commons, Relating to the Trade with China*, 2nd. ed. London: R. Clay, Printer, Bread-Street-Hill. 이 책은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1에 Hall,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와 함께 영인되어 있다. Karl Friedrich Gützlaff. 1834. *Journal of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1832, and 1833, with Notice of Siam, Corea, and the Loo-Choo Islands*. London: R. Clay, Printer, Bread-Street-Hill. 이 책은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4로 서울의 경인문화사에 의해 2000년에 영인본으로 출판됐다. 원전에는 귀츨라프가 Gützlaff가 아니라 Gutzlaff로 표기되어 있다.

주민들은 강한 적대감을 표시했다. 한문을 쓸 수 있었던 린세이는 한문을 아는 한 청년과 간단한 필담을 나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린세이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만 그는 조선국왕에게 영국과의 통상을 허락해줄 것을 청원하는 서신을 써서 조선의 관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녹도의 주민들로부터 빨리 떠나라는 신호를 받은 이 배는 7월 22일에 장산곶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다. 이 배는 곧 충청도 강경(江景)에 닿았으며, 거기서 마침내 조선의 한 관리에게 청원서를 전달했다. 배는 곧 충청도 홍주(洪州)의 고대도(古代島)에 당도했으며 거기서는 홍주 목사를 비롯해 이 지역의 관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린세이 일행과 조선의 관리들은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 계제에 린세이는 다시 조선과의 교역을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하면서, 수도로부터 빨리 회답을 받고 싶다는 뜻도 아울러 전달했지만 매우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대답만 들었다. 이 과정에서 귀츨라프는 조선의 관리들이 거짓말을 예사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애걸해서는 아무 것도 허용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할 때 모든 것이 얻어질 것이다(When we beg, nothing is granted; when we demand, every thing is obtained)"라는 결론에 도달했다(Gützlaff 1834, 336).

조선의 관리들은 일행이 마을을 돌아보는 일을 여전히 금지했다. 이 사실과 관련해, 린세이는 조선사람들은 어떤 아주 강력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무서운 형벌 때문에 "아주 강력하고 보편적인" 외국인공포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쓴 데 이어, "조선사람은 천성적으로 의심이 많은 인종인 것 같다(The Coreans appear naturally to be a suspicious race)"고 결론을 내렸다(Lindsay 1834, 234).

며칠이 지나서야 금지가 풀려 일행은 정박지 일대를 돌아볼 수 있었다. 대체로 마을은 황폐해 있었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열악했다. 귀츨라프의 표현으로, "조선사람들은 불결과 빈곤으로 자신의 생애를 보내야 하는 끔찍한 거처 속에서 살고 있었다(Such are the dreary abodes where the Coreans pass their life amidst filth and poverty)." 그의 관찰은 계속됐다. "우리가 만난 많은 사람들의 피부는 어김없이 때로 뒤덮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씻지 않아서 이 따위의 해충들이 득실댔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해충을 잡아 죽이는 짓을 주저하지 않았다. [...] 살림도구는 서툴게 만들어져 있었다. 진흙으로 빚어졌는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조

잡한 종류였다(Lindsay 1834, 345)." 반면에 관리들은 잘 살고 있었다. 옷을 우아하게 입고 있었고 생활에 편리한 물건들은 이 나라가 공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소유하고 있었다. 귀츨라프의 이러한 관찰, 곧 관리들은 잘 살지만 백성들은 가난하게 산다는 관찰은 그 이후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기록들에서 반복된다.

섬을 둘러보면서 귀츨라프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토지가 비옥해서 나무나 꽃이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그는 주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이 황야를 에덴동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주민들의 "수치스런 게으름"이 그들의 삶을 열악한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 주민들은 왜 게을렀던 것인가? 귀츨라프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주민들이 게으르다고 비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힘을 쓰는 데 필요한 자극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주민들이 노동의 열매를 즐기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거우 하찮은 생필품 이외에는 어떠한 물건도 소유하는 데 무관심했다(We cannot charge them with laziness, but we fear they want the necessary stimulus to exertion. Government does not permit them to enjoy the fruits of their labours; they are therefore indifferent to the possession of any thing beyond the bare necessities of life.) (Gützlaff 1834, 346)" 바꿔 말해, 귀츨라프는 조선사람들의 게으름과 가난의 책임을 노동의 대가를 허용하지 않는 조선조정에 돌린 것이다. 귀츨라파의 이 지적은 그 이후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기록들에서 반복된다.

귀츨라프는 조선사람들이 잘 살 수 있으려면 외국들과의 거래를 터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선을 외국들로부터 "배제(exclusion)"시키는 현재의 국가정책으로는 이 나라가 잘 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조선조정이 기독교의 전파를 허용해 조선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배우게 하면 조선사람들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표시했다(Gützlaff 1834). 조선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낀 그는 린세이와 함께 감자를 심어주고 감자 재배법을 가르쳐주었다.

일행은 영국이 조선과 교역하고 싶으며 조선조정이 이것을 허락해주기 바란다는 뜻을 반복적으로 표시했다. 마침내 일행과 조선조정의 관리 사이에 이 주제를 놓고 대화가 열렸다. 그 관리는 조선은 "대청제국(大淸帝國)"에 "예속되어 있으며(subservient)" 중국황제의 명령에 "복종(obey)"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관(our superior) 중국황제의 명령과 재가가 내리기 전에는" 어떤 다른 나라와도 교역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린세이는 시암(Siam: 오늘날의 태국: 필자

주)과 코친(Cochin: 오늘날의 베트남의 일부: 필자 주)도 중국과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영국과 교역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Lindsay 1834, 245-253).

린세이 일행은 결국 소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남쪽으로 떠났다. 다도해를 지나 9월 17일에 제주도를 보았지만 상륙하지는 않았으며, 거기서 류큐로 갔다(Lindsay 1834, 292). 다른 한편으로, 조선조정은 조정의 허가 없이 린세이 일행과 접촉한 관리들은 엄벌했다.

5. 벨처의 제주도 및 거문도 탐사

영국이 이른바 아편전쟁에서 청나라를 굴복시키고 청나라로 하여금 굴욕적인 남경조약을 받아들이게 만든, 그리하여 청나라의 국내외적 위신이 크게 떨어진 1842년을 계기로, 이양선(異樣船)이라고 불린 유럽열강의 군함들 또는 선박들이 청나라의 속방으로 알려진 조선의 해역에 훨씬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갖는 함의(含意)는 컸다. 유럽열강은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이른바 종주권은 약화됐으며 따라서 자신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계산한 것이다. 실제로 남경조약 체결로부터 34년이 지난 1876년에 일본은 조선에 개항을 강요하고 일본과 조선 사이에 체결된 강화도조약을 통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의 해역에 출현한 유럽열강의 군함들 가운데 대표적 보기가 1845년 6월과 7월 사이의 37일에 걸쳐 조선의 남해안 일대를 탐사한 영국군함 사마랑(Samarang)호였다. 함장은 1799년에 캐나다에서 출생했으나 1812년에 영국해군에 입대했으며 그 뒤 세계의 많은 해역들을 탐사한 벨처(Edward Belcher) 대위였다. 그는 아편전쟁에 참전한 용사이기도 해서 그를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호전적"인 군인으로 비치기도 했다. 뒷날 북극으로 항해하려다가 군함들을 잃어 군법회의에 의해 퇴역을 명령받기도 했으나 결국 제독으로 승진하는 그는 해군성을 통해 자신의 여행기를 남겼다.[25]

---

25) Edward Belcher. 1848. *Narrative of the Voyage of H. M. S. Samarang During the Years 1843~46*. 2 Vols. London: H. M. Admiralty. 이 책은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5와 16으로 각각

함장 벨처는 1845년 6월 25일에 대원들을 거느리고 제주도 동쪽의 작은 섬 우도(牛島)에 상륙해 이곳을 기지로 삼아 7월 14일까지 제주도를 탐사하고 해도를 작성했다. 그는 자신의 중국인 통역을 사이에 두고 이 지역의 조선관리들 및 주민들과 필담을 나누는 가운데 친교를 맺었다. 그러나 쌍방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 불상사가 일어났다. 양측 사이에 포화(砲火)가 교환된 것이다. 다행히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았으며, 양측은 이번에는 선물들을 교환했다.

벨처는 섬 탐사가 끝나자 북쪽으로 항해했다. 곧 세 개의 섬들을 발견하고, 7월 16일에 바깥 만에 닻을 내렸다. 그는 이곳을 영국 해군성 장관을 기리기 위해 해밀턴항(Port Hamilton)이라고 명명했다(Belcher 1848, 352). 바로 오늘날 전라남도 여수시에 속하는 거문도(巨文島)였다. 그는 대원들과 함께 상륙해 주민들을 만났다. 그의 눈에 주민들은 "아주 빈약한 자료들"을 활용한 질긴 천의 옷들을 입고 있었다(Belcher 1848). 그는 4일 동안 이 섬을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한 뒤 우로도 돌아가면서 이 섬을 "문명의 아주 작은 흔적도 지니지 않은(without the slightest traces of civilization)" 곳이라고 기록했다(Belcher 1848, 355). 거문도에 대한 영국해군의 전략적 관심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 예컨대, 1855년에는 측량선 사라센(Saracen)호가 이 섬을 측량하며, 마침내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영국해군이 이 섬을 점령한다. 이때 영국해군이 사용한 해도가 바로 벨처의 해도였다(Belcher 1848).[26]

6. 세실, 라피에르, 게랭 그리고 로즈의 조선원정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군함이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의 서해안에 나타났다. 세실(Tomas Cecill) 해군제독이 이끄는 클레오파트르호(La Cleopatre)가 1846년 음력 6월에 오늘날의 충청남도 보령시(保寧市) 일대의 몇몇 섬들에 정박했다가 떠난 데 이어, 라피에르(Lapierre) 해군대령이 이끄는 라 글루아르(La Gloire)호가 양력 1847년 8월에 오늘날의 전라남도 소흑산도(小黑山島) 북상의 섬 앞에 출현한 것이다. 이 배는 곧 난파했으며 선원들은 연락을 받은 영국의 구조선들의 도움을 받아 중

서울의 경인문화사에서 2000년에 영인본으로 출판됐다. 조선에 대한 기록은 제1권의 제10장에 있다.

26) 제1권 15-2쪽에 게재된 정성화 교수의 해제.

국으로 갔다(Belcher 1848, 359-432).

프랑스군함의 내조(來朝)는 그 이전의 유럽 선박들의 내조와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랐다. 프랑스는 조선이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응징하겠다는 차원에서 군함을 보냈던 것으로, 따라서 그것은 원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프랑스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1848년 2월에 일어난 혁명과 6월에 일어난 폭동으로 조선문제에 정력을 기울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51년에 나폴레옹 3세가 군사쿠데타를 통해 프랑스제국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대외팽창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자 조선문제는 새로운 관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나폴레옹 3세는 1855년 10월 19일에 인도차이나함대사령관 게랭(D. Guerin) 제독에게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조건과 기회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비밀지령을 내렸다. 이 비밀지령에 따라 게랭은 철종 7년에 해당되는 1856년 7월 16일에 동해안의 영흥만에서 출발해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의 덕적군도(德積群島)에 이르기까지 2개월 동안 조선을 탐사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Belcher 1848, 448-455).

이 탐사를 마친 뒤 그는 파리의 식민성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그는 조선의 국내외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첫째, 조선의 관리들이 백성들로부터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함으로써 정부와 백성 사이가 분열되어 있다고 보았다. 둘째, 조선은 무력한 나라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관리들이 군함 한 척 앞에서 떨거나 달아날 줄밖에 모르는 이런 나라는 처음으로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생각하는 유럽열강의 야심에 희생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내다보았다. 셋째, 이제까지 중국이 조선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했으나 중국은 더 이상 그러한 능력을 갖지 못할 것이며, 이 점을 간파한 러시아가 조선에 야심을 품고 조선정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넷째, 러시아의 조선정복을 막으려면 그것에 앞서 프랑스가 군사력을 동원해 조선을 정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조선의 군사적 정복이 크게 어려울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정부는 게랭의 건의를 묵살했다. 중국문제에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Belcher 1848, 455-458).

그러나 게랭 제독이 조선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탐사하고 돌아간 때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1866년에 프랑스의 중국주둔함대사령관 로즈(Pierre Gustave Roze) 제독은 조선이 천주교 교도들과 선교사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데 대한 보복으로 조선

원정을 시도했다. 이 해 10월에 로즈가 이끈 프랑스함대는 강화도에 상륙했으며 곧바로 이 섬의 외규장각(外奎章閣) 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의 고문서들을 약탈했다. 10월 26일에 양측 사이에 교전이 이뤄졌다. 조선측의 저항은 예상 밖으로 완강해, 로즈는 대원들을 이끌고 중국으로 후퇴했다. 이것이 조선에서는 병인양요(丙寅洋擾)로 기록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 병인양요로부터 5년이 지난 1871년에 미군의 강화도원정에 따른 신미양요(辛未洋擾)가 발생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2회에서 다루기로 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상기돼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로즈 제독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이른바 종주권이 사실상 소멸됐다고 판단하고(불레스텍스 2001, 92) 작전을 펼쳤다는 사실이다. 조선에 대한 군사적 정복을 건의했던 게랭 제독이 이미 10년 전에 판단했듯, 로즈 제독 역시 청나라는 조선의 "보호"를 위해 어떤 형태의 군사적 개입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귀국한 대원들 가운데 몇몇은 1867년부터 조선에 관한 글들을 출판했다. 이 글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조선은 "폐쇄적"이며 조선민족은 "반야만적(半野蠻的)"이라는 것이었다. 예컨대, 함대의 참모장이던 앙리 주앙(Henri Jouan)은 1871년에 출판한 『1866년의 조선원정기』에서 "항해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최근의 유명한 난파사건들로 말미암아 조선은 선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바다의 위험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끔찍한 죽음뿐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조선의 주민들은 외국인을 고립시키려 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불레스텍스 2001, 113-114).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 젊은 필자는 조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군소위후보생이던 앙리 주베르(Henri Zuber)는 1873년에 출판한 『조선원정』에서 조선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며 산을 잘 탄다고 지적한 데 이어 독서를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다른 이들의 멸시를 받기 쉽다. 문맹인에 대해 그토록 엄격한 태도를 취한다면 프랑스에는 멸시받을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종이와 책은 갖추고 있다(불레스텍스 2001, 115-116)." 이 구절은 하멜이 자신의 『표류기』에서 이미 지적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7. 푸차친의 독도발견 및 거문도 상륙

게랭 제독이 이미 경고했듯, 러시아의 군함들은 1850년대에 조선해역을 넘나들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철종 5년에 해당하는 1854년에 러시아의 푸차친(Efin Vasilievich Putiatin) 해군중장이 이끈 함대의 동해 및 남해 항해였다. 기함 팔라다(Pallada)호와 그리고 보스토크(Vostok)호 및 올리부차(Olivutsa)호 등을 이끈 그는 당시 일본과의 외교 및 통상 관계를 공식적으로 개설하기 위해 러시아대표단을 이끌고 일본으로 항해한 것이다. 그는 그 무렵 러시아에서 문명을 떨치던 작가 곤차로프(Ivan Aleksandrovich Goncharof)를 비서로 대동하고 있었는데, 곤차로프는 항해를 끝내고 귀국한 뒤인 1858년에 『전함 팔라다호』(전 2권)를 출판해 팔라다호의 항해과정을 자세히 알렸다(한상복 1988, 376).

팔라다호의 조선탐사와 관련해 특기해야 할 것은 우선 이 군함이 1854년 3월에 서양의 선박으로서는,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에 이어 두번째로, 독도를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푸차친은 동도와 서도에 각각 메넬라이(Menelai)와 올리부차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전체에 메넬라이 앤드 올리부차 록스(Menelai and Olivutsa Rocks)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메넬라이는 올리부차호의 옛 이름이었다. 푸차친은 또 4월에 원산을 라자레프항(Port Lazaref)으로 명명했는데, 자신이 한때 상관으로 모셨던 라자레프(M. P. Lazaref) 제독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한상복 1988, 375).

1854년 4월에 팔라다호는 거문도에 도착했으며, 선원들은 하선해 닷새 동안 머물며 주민들을 만났다. 곤차로프는 돌담을 보고 "조잡하며 무능했다. 조선인은 정말 노력을 싫어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썼다. 마을은 "모든 것이 엉성하고 가난하고 비참했다(박천홍 2008, 517-518)."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귀츨라프의 관찰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곤차로프의 관찰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조선사람들을 "어린애들," 곧 "정치성(政治性)"을 기르지 못해 정치적으로 무지한 미개인들로 단정하고, 조선을 "유럽에 신속하게 접근함으로써 자신을 재교육해야 할 나라"로 파악했다(박천홍 2008, 534-536).

8. 오페르트의 『금단의 나라: 조선기행』

하멜 이후, 조선을 직접 방문하고 조선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긴 서방사람으로 우리는 독일의 유대계 상인 에르네스트 오페르트(Ernst Jakob Oppert)를 지적할 수 있다. 그는 프랑스의 강화도침공이 시도됐던 해인 1866년의 2월 및 6월, 그리고 1868년 4월 —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조선을 방문하면서 주로 서해안 지역들을 탐사하고 귀국한 뒤 1879년에 독일어로 『금단의 나라: 조선기행』을 집필해 1880년에 출판했던 것이다. 이 책은 같은 해에 영어로도 출간됐으며, 그리하여 서방권에 조선을 널리 알리게 됐다.[27] 1880년이라면 조선이 개항한 1876년으로부터 4년이 지나서이다. 따라서 출판년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책은 제2회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관찰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이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 책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저자 오페르트에 대해 살필 필요를 느낀다. 우리들에게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南延君)의 묘를 도굴하려한 범인으로 단순하게 각인되어 있을 뿐인 그의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 이 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페르트는 1832년에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여행가이자 인종학자로 컸다. 그에 대해 신복룡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동양의 인종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해박한 인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쇄국으로 인하여 세계대세를 외면하는 한국의 지배자에 대해 짙은 연민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에 대해 서방에 알려진 바가 없던 1860년대에 이미 한국의 역사 · 언어 · 풍습 · 제도에 대해 깊은 이

---

27) Ernst Jakob Oppert. 1880. *Ein Verschlossenes Land: Reisen nach Korea*. Leipzig; Ernest Jacob Oppert. 1880. *A Forbidden Land: Voyages to the Corea, With an Account of Its Geography, History, Productions, and Commercial Capabilities*. New York: G. P. Putnam's Sons; 1880. London: S. Low, Marston, Searle, and Rivington. 이 책은 경인문화사(景仁文化社)가 발간한 근세동아세아서영어자료총서 86권(2001년)에 William Richard Carles의 *Life in Corea*와 함께 영인되어 있다. *Life in Corea*에 대해서는 제2회에서 토론할 것이다. 오페르트 책의 방역본으로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1) 한우근. 1956. 『금단의 나라 조선기행: 지리 · 역사 · 산물 · 상업상태 · 언어와 풍속 · 국법과 정체』. 서울: 문교부. 역자는 다음과 같이 개역본을 출판했다. 한우근. 1974. 『조선기행』. 서울: 일조각. 2) 신복룡 · 장우영(張又永) 공역. 2000. 『금단의 나라 조선』. 서울: 집문당.

해를 가지고 있었[다](신복룡 2002, 53)." 신 교수는 오페르트의 책에 "실린 그의 해박한 식견, 특히 인종학적 소견은 전문가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도굴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끝나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는 말로 그에 대한 변호를 아끼지 않았다. 신 교수의 변호는 계속됐다. 대원군의 천주교도 박해를 용서도 묵과도 할 수 없는 그로서 아마도 대원군을 자극하기 위해 왕릉의 도굴이라는 극단적 방법에 의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서 신 교수가 오페르트를 일방적으로 변호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오페르트의 과오들에 대해서는 적절히 비판했다(신복룡 2002, 54-55).

그러면 오페르트는 이 책에서 조선을 어떻게 묘사했던가? 이 책은 9개의 장 및 350쪽의 분량으로 구성됐으며, 조선의 역사와 지리 및 문화는 물론 정치제도와 대외관계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그의 설명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멜의 책을 비롯해 레지스 신부의 글들과 뒤 알드의 글들로부터 빌려왔다. 앞에서 지적했듯, 이 프랑스 신부들의 글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었기에 이 책에는 중국의 인식이 적잖게 반영되어 있다. 그는 또 일본의 역사 책들에 의존하기도 해서 일본의 인식이 그대로 전달된 경우들이 때때로 엿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이 세 차례에 걸쳐 행했던 조선탐사 때의 경험들을 서술한 부분들은 새로운 내용들이다. 특히 조선조정의 천주교 박해 그리고 그것에 따른 프랑스의 항의와 그것이 빚어낸 병인양요 등에 대한 서술은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이 참고할 만 하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 책의 내용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살피기로 하자.

첫째, 조선의 역사 및 지리에 관해서이다. 오페르트는 조선사람들이 코케이시언과 몽골리언의 혼종이라고 보았다. 그는 조선의 역사가 기자(Kitse 또는 Kitsu)의 건국으로 시작됐다는 이른바 기자조선설을 되풀이 했으며, 그래서 조선의 역사는 이 책의 출판의 시점에서 약 2,400년 됐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조선사람들은 중국사람들의 한 분파가 아니라고 단언하면서, 조선사람들은 흰 옷을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처음 조선땅에 상륙했을 때 "아주 많은 흰옷의 사람들"을 보았음을 회상했다(Oppert 1880, 5-11, 51, 125-126, 181).

오페르트는 당시 조선의 인구를 약 1,500만 명에서 1,600만 명 사이로 보았다. 그러나 지방의 관청들은 중앙정부에 바쳐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를 줄여서 보고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덧

붙였다(Oppert 1880, 22-23). 현재 일본의 영토가 된 대마도는 원래 조선의 영토였다고 기술했다(Oppert 1880, 75).

둘째, 조선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이다. 중국의 황제가 조선에 대해 "종주권(suzerain powers)"을 행사하고 있다는 통설을 "낡았고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다. 지난날에도 중국의 "종주권"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며, 어떤 특정하게 규정된 권리들에 한정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오페르트는 "이 온건한 형태의 봉신제(封臣制) 역시 오래 전에 종식됐다(This mild form of vassalage has also long since ceased to exist)"고 단언했다(Oppert 1880, 33-34). 그는 "조선의 정부는 절대적이며 최고의 통치를 행하는 독립적 국왕의 존재 위에 서 있다(The government of Corea has devolved upon an independent king, whose rule is absolute and supreme)"고 강조했다(Oppert 1880, 33).

셋째, 조선의 정부와 정치제도에 대해서이다. 오페르트는 의정부와 6조에 대해서는 물론 사헌부와 사간원 및 암행어사에 대해 자세히 썼으며 지방의 수령방백 및 육군과 수군의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다. 관료사회의 부패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는데, 모든 관직들이 가장 높은 값을 제공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관직을 차지한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을 상대로 "강도와 수탈(rob and plunder)" "약탈과 착취(pillage and extortion)"를 저지른다고 평가했다. 대원군 시대에 관해 말하면서, 암행어사제도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덧붙였다(Oppert 1880, 43-44). 같은 맥락에서, 그는 "조선의 왕의 지배는 절대적이며, 그의 뜻 하나가 법이다(The rule of the king of Corea is absolute, and his will alone is law)"라고 썼다(Oppert 1880, 33, 36).

넷째, 조선의 산업에 대해서이다. 오페르트는 우선 조선의 날씨가 좋고 땅은 비옥하다고 썼다. 이어 조선에는 광물자원이 풍부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광물자원의 부유함에 있어서 전체 아시아대륙의 어느 나라도 코레아에 접근할 수 없다는 나의 확고한 신념을 여기에 말해두고자 한다"고 썼다. 그는 특히 금과 은이, 그것들 가운데 금이, 조선 전국의 어느 곳에서도 발견된다고 덧붙였다(Oppert 1880, 147, 171-172). 종이의 질은 중국의 그것이나 일본의 그것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그는 "공업적 기술과 근로정신에서 조선사람들은 어떤 다른 아시아국가에 훨씬 뒤쳐진다(In industrial art and workmanship the Coreans rank far below any other Asiatic nation)"고 파악하면서, 그 원인을 "결정적으로 억압적인 정부의 체제(the decidedly repressive system of the government)"에서 찾았다. 정부는 산업의 발전

그 자체를 바라지 않으며 그것을 억제시키며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Oppert 1880, 174). 같은 맥락에서, 그는 "산업적 기업의 정신이 이 나라에서는 거의 완전히 분쇄되어 있다"고 관찰하면서 그 원인을 "억압적 정치체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들과의 교류로부터도 완전히 소외된 현실에서 찾았다.(The spirit of industrial enterprise is nearly crushed in a country, which for ages past has been suffering under an oppressive political system, and has been estranged from almost all intercourse with its nearest neighbors.) 조선에서는 국내교역은 물론 대외무역 역시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Oppert 1880, 175).

다섯째, 조선사회의 풍습에 대해서이다. 오페르트는 "조선사람들은 정직하고 천성이 선하며 큰 범죄와 살인 및 절도를 잘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것은 하멜의 관찰과 대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매우 엄격히 처벌된다고 보았다(Oppert 1880, 145). 조선사람들의 풍습과 관련해, 상류사회에서는 중혼(重婚)이 보편적이고 여성은 고립된 채 생활한다고 보았다. 집과 관련해, 일반백성들은 예외없이 진흙으로 짓고 그 위에 짚을 얹은 1층에서 산다고 기록한 뒤 조선사람들의 집은 "초라하다(poor)"고 덧붙였다(Oppert 1880, 131, 136).

여섯째, 그는 집필의 시점에서, 즉 조선이 개항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이 시작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조선의 동북쪽으로 진출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그가 "코레아가 러시아의 소유가 되는 것을 선호할 만 하다(It might be preferable to have the Corea taken possession of by Russia)"고 제의한 사실이다(Oppert 1880, x). 그는 이 제의를 서문에서 짧게 썼을 뿐 그러한 제기의 배경을 자세히 쓰지 않았다.

VII. 맺음말

이제까지 우리는 조선이 1876년에 개항하기 이전의 시기에 서양인들이 조선을 어떻게 보았던가를 그들의 저술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것들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의 관찰자들은 신라와 교역하던 중동사람들이었다. 이어 고려의 관찰

자들은 유럽의,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예수회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몽골을 통해 고려의 이름을 접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관찰자들의 성격은 바뀌었다. 새로운 관찰자들은 "대항해 시대"를 이끈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예수회 선교사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동아시아 교역의 중요한 거점인 일본을 통해 조선에 접했다. 그들이 일본을 통해 조선에 접했기에 조선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왜곡되어 있었거나 부정확했다. 조선은 맹수가 들끓고 추위가 극심하며 사막이 가로질러 존재하고 산악으로 막힌, 말하자면 불가촉(不可觸)의 땅과 같이 묘사했다. 거기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조선과 교역의 문을 여는 것을 방해하려는 일본사람들의 고의가 개입되어 있었다.

임진왜란은 유럽사람들로 하여금 조선에 대해 그 이전에 비해 훨씬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일본의 군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또 포로가 돼 끌려간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조선에 대해 여러 형태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활동하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예수회 선교사들은 그들의 진술들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조선에 표착한 네덜란드사람 하멜의 『표류기』는 조선에서 생활한 서양인의 최초의 견문기였다. 이 책은 조선이 학문을 숭상하는 나라라는 인상과 동시에 조선은 과학기술과 상공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나라라는 인상을 서방세계에 심어주었다.

그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해양탐험과 신대륙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두 나라의 조선해안 탐사가 활발해졌다. 프랑스의 경우, 천주교 포교의 사명이 가미됐다. 곧 러시아와 독일도 이 대열에 참여했다. 그리하여 1700년대 종반에 들어서서는 조선에 대한 유럽 열강의 관심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사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적 및 군사적 성격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1850년대가 되면 조선을 둘러싼 유럽열강의 각축이 그 전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 및 독일은 러시아의 조선진출 시도에 짙은 경계심을 나타냈다.

둘째, 서양인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조선은 중국인 기자가 세웠으며 중국의 변방에 위치한 야만적 속국이라는 인식이었다. 조선의 이미지는 대체로 몽골과 티베트 및 타타르 등에 연결됐으며 따라서 조선은 대체로 난폭한 야만인들이 사는 변방의 나라로 비쳤다.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배한 1842년 이후 유럽열강은 비로소 조선이

청의 이른바 종주권으로부터 풀리기 시작한 나라로 인식했다. 이 인식은 유럽열강으로 하여금 청을 대신해 자신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기회를 갖게 됐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이 판단은 1860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하고 청나라로 하여금 굴욕적인 북경조약을 받아들이게 한 이후, 그리하여 청의 위신이 더욱더 추락한 이후, 더욱 굳어졌다.

셋째, 1800년대 이후 조선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찰은 그 이전에 비해 훨씬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조선의 병폐들은 우선 대외적 폐쇄와 외부세계에 대한 무지였다. 그러나 그것들에 못지 않게 심각한 병폐로 지적된 것은 지배계급의 백성을 상대로 한 탐학과 착취였다. 이것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간격을 넓혀 국가 전체의 분열을 낳았고,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노동의욕을 잃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조선을 궁핍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그들은 보았다.

넷째, 이러한 관찰로부터 서양인들은 조선의 국가적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조선을 "재교육"시켜야 한다는 논리, 조선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어느 다른 유럽국가가 조선을 점령하기에 앞서 자신의 국가가 조선을 점령해야 한다는 제의 등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상에서 요약한 서양인들의 관찰은, 우리가 제2회에서 보게 되듯, 개항 이후에 출판된 서양인들의 저술들에서 반복된다. 그리고 조선은 결국 러시아가 점령하기에 앞서 일본이 점령해야 한다는 논리 아래 일본에 강제로 병합된 채 멸망한다. 그리고 "재교육"론은 뒷날 코리아에 대한 "신탁통치"론으로 나타난다.

투고일 2008년 12월 21일
심사일 2009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09년 1월 19일

참고문헌

강준식. 1995. 『우리는 코레아의 광대였다: 하멜의 조선기행』. 서울: 웅진출판.

_____. 2002. 『다시 읽는 하멜표류기: 350년 전 네덜란드와 코레아의 운명적인 만남』. 서울: 웅진닷컴.

곽차섭. 2004. 『조선청년 안토니오 코레아, 루벤스를 만나다』. 서울: 푸른역사.

김정위. 1977. 「중세 중동문헌에 비친 한국상(韓國像)」, 『한국사연구』. 제16집.

김호동 역주. 2000.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서울: 사계절.

뒤 알드, 신복룡 역주. 1999. 『조선전』. 서울: 집문당.

루이스 프로이스 저. 강병구(姜炳求) 역. 1999. 『포르투갈 신부가 본 임진왜란 초기의 한국: 「일본사」 내 16세기 한국에 관한 최초의 세부적인 기술(記述)』. 서울: 주한 포르투갈문화원.

무함마드 깐수. 1992. 『신라 · 서역 교류사』.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바실 홀, 신복룡정성자 역주. 1999. 『조선서해탐사기』. 서울: 집문당.

박대헌. 1996. 『서양인이 본 조선: 조선관계 서양서지(西洋書誌)』(전 2권). 서울: 호산방.

박윤희. 1975. 『하멜표류기: 조선왕국견문록』. 서울: 삼중당.

박천홍. 2008.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 서양과 조선의 만남』. 서울: 현실문화연구.

박 철. 1987. 『예수회신부 세스뻬데스: 한국방문 최초 서구인』.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신복룡. 1999. 『하멜표류기』. 서울: 집문당.

_____. 2002.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 서울: 풀빛.

안응렬최석우 역주. 1979 및 1987. 『한국천주교회사』(전 3권). 서울: 분도출판사.

오인동. 2008. 『꼬레아, 코리아: 서양인이 부른 우리나라 국호의 역사』. 서울: 책과함께.

이능식윤지선 공역. 1947. 『조선교회사』. 서울: 대성출판사[大成出版社].

이병도. 1954 및 1975. 『란선(蘭船) 제주도 난파기: 부(附) 조선국기(朝鮮國記)』. 서울: 일조각.

정기수. 1966. 『조선교회사서론』. 서울: 탐구당.

정성화. 2005. 『서양의 한국: 이미지의 탄생과 변화』. 서울: 명지대학교출판부.

정수일. 2002. 『문명교류사 연구』. 서울: 사계절.

프레데릭 불레스텍스. 2001.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서울: 청년사.

최두환. 2003. 『신 하멜표류기』. 서울: 도서출판 우석.

한상복. 1988. 『해양학에서 본 한국학』. 서울: 해조사〔海潮社〕.

Belcher, Edward. 1848. *Narrative of the Voyage of H. M. S. Samarang During the Years 1843~46*. 2 vols.: London: H. M. Admiralty.

Bishop, Isabella Bird with a preface by Sir Walter C. Hillier. 1987. *Korea and Her Neighbo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2 vol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Brookes, Richard. 1736. *The General History of China: Containing a Geographical, Historical, Chronological, Political and Physical Description of the Empire of China, Chinese-Tartary, Corea, and Tibet, Including an Exact and Particular Account of Their Customs, Manners, Ceremonies, Religion, Arts and Sciences*. London: J. Watts.

Broughton, William Robert. 1795~1798.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North Pacific Ocean*.

Churchill, Awnsham ed. 1732. *A Collection of Voyages and Travels*. London: John Walthoy.

Hall, Basil. 1818.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eo-choo Island*. London: John Murray.

Gutzlaff, Karl Friedrich. 1834. *Journal of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1832, and 1833, with Notice of Siam, Corea, and the Loo-Choo Islands*. London: R. Clay, Printer, Bread-Street-Hill.

Ledyard, Gari. 1971. *The Dutch Come to Korea*. Seoul: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in Conjunction with Taewon Publishing Company.

Grayson, James Huntley. 1989. *Korea: A Religious History*. Oxford: Clarendon Press.

Lindsay, H. H. 1834. *Report of Proceedings on a Voyage to the Northern Ports of China in the Ship Lord Amherst: Extracted from Papers, Printed by Order of the House of Commons, Relating to the Trade with China*, 2nd. ed. London: R. Clay, Printer, Bread-Street-Hill.

Oppert, Ernst Jakob. 1880. *Ein Verschlossenes Land: Reisen nach Korea; A Forbidden Land: Voyages to the Corea, With an Account of Its Geography, History, Productions, and Commercial Capabilities*. New York: G. P. Putnam's Sons; London: S. Low, Marston, Searle, and Rivington.

Savage-Landor, Arnold Henry. 1985. *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New York: Macmillan and Co.

ABSTRACT

Chosun as Seen by Westerners (Series No. 1)

Hakjoon Kim | Dong-A Ilbo

This article reviews books or articles written by Westerners, who studied Chosun or visited Chosun, before its opening in 1876. Their observations may be summed up as follows:

1. Most of them wrote that the origin of Chosun could be traced to Kija, a Chinese aristocrat. In other words, they tended to assert that Kija founded the kingdom of old Korea.

2. Most of them regarded Chosun as one of tributary states in a remote region of China. They tended to include Chosun in the same category of Mongol, Tatar, and Tibet, which were retarded and uncivilized.

3. Since the late 18th century, the British, the French, and the Russian fleets came to Chosun for some military purposes. They noted that Chosun was a weak, corrupted, and divided country. They also noted that Chosun did not develop science, technology, industry and commerce. From such observations, some predicted that Chosun would become a sacrifice by a certain Western power. Others suggested that Chosun should be "reeducated" by European countries to become a civilized country.

Keywords: Gregorio de Céspedes, Luís Fróis, Hendrick Hamel, Jean-Baptiste Régis, Jean Baptiste Du Halde, l'Abbé Prévos, Père Claude Charles Dallet, Jean-François de Galaup de la Pérouse, William Robert Broughton, Basil Hall, D. Guerin, Ivan Aleksandrovich Goncharof, Pierre Gustave Roze, Ernst Jakob Oppert